

美 교회 7년간 출석 2,000% 급증

미국 워싱턴 D.C.의 한 교회가 지난 7년간 예배 참석 인원이 2,0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회 지도자들은 그 주요 원인으로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증가, 그리고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의 영향을 꼽았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018년 설립된 킹스처치 DC(King's Church DC)는 창립 몇 년간 성장 정체를 겪었으나, 현재는 약 600명의 교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동 담임목사 중 한 명인 벤 팔카(Ben Palka)가 밝혔다.

팔카 목사는 “처음 몇 년은 많은 인내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시기를 견뎌야 했다”며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를 계속 열기로 결정했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셨다. 거의 매달 배로 성장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남침례회와 연계된 교회인 킹스처치 DC는 미 국회의사당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주일 예배 평균 참석 인원은 600~7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특히 2020년을 전후로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눈덩이 효과가 나타났다”며 “이전에 신앙에 크게 진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신앙에 깊이

헌신하게 되었고, 매년 수십 명씩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부목사인 웨슬리 웰치(Wesley Welch) 역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정체기를 지나 2020년 중반 ‘부흥’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교회가 CP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평균 출석 인원은 30명, 2019년 50명이었으며, 이후 2020년 150명, 2021년 300명, 2022년 350명, 2023년 450명, 2024년 550명, 2025년 650명으로 매년 30~10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킹스처치 DC는 특히 지난해 9월 10일 유타밸리대학 교에서 발생한 터닝포인트 USA(Turning Point USA) 창립자 찰리 커크의 암살 이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출석 인원 증가를 경험했다.

팔카 목사는 “커크 암살 이후 혼란 속에서 상식을 말해줄 목소리를 찾는 젊은 남성들이 특히 많이 교회를 찾았다”고 말했다.

교회 부목사 다니엘 데이비스(Daniel Davis)는 최근 여러 연구에서 Z세대의 예배 참석률이 높게 나타나는 또 다른 이유로 “의미가 결핍된 세상에서 성장한 환경”을 지목했다.

이미경 기자 → 12면에서 계속



King's Church



달라스 위브릿지 컨퍼런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다

건강한 교회와 목회의 회복 향한 복음주의적 성찰의 장

지난 주말 기록적인 한파와 겨울 폭풍이 북텍사스 지역에 덮쳤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사역은 이어졌다.

텍사스 주 지역으로 확장된 ‘달라스 2026 위 브릿지 컨퍼런스(We Bridge Conference)’가 기독일보 주최로 26일(월)부터 27일(화) 양일간 플라워마운드교회(최승민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건강한 교회 세우기(연합, 섬김, 위로)”를 주제로, 교회와 목회자들을 연결하고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LA를 비롯해 휴스턴, 샌안토니오, 오스틴 등 각지에서 자리에 참여했다.

김경도 목사 ‘목회코칭’

첫날 오후 1시 30분에 김경도 목사(플라워마운드교회 사역목사)는 미주 한인 이민교회 현실 속에서 코칭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현재 사역의 방향을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코칭을 통해 목회자의 역량을 키우는 ‘목회 코칭’, 둘째는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을 세우는 ‘조직 코칭’이라고 말했다. 그

는 특별히 평신도 코칭을 통해 교회 안에 건강한 리더십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에 왜 리더들이 세워지지 않는가, 왜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은 목회자들이 하고 있다. 성경을 가르치고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깊이 살펴봐야 한다”며 “진정한 양육의 99%는 일대일 코칭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조엘 코미스키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교회 내 일꾼 부족과 리더십 부재 역시 일대일 코칭의 부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시 목회를 한다면 일대일 코칭에 집중하고 싶다”며 “참된 양육이 개인을 향한 깊은 코칭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삶의 자리에서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 코칭이 필수적이라며 지시와 명령 중심의 리더십이 아닌, 상대방 중심의 코칭 리더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과거 산업사회는 상하 조직과 권위적 리더십이 중심이었지만, 오늘날은 수평적 관계와 자발성이 중요한 시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경적 코칭 모델로 모세와 이드로,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소개했다. 김 목사는 “코칭은 관계로 시작해 관계로 끝난다”며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 관계를 맺고 사명을 깨닫게 하며 사역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 위대한 코칭의 모습이다. 코칭을 통해 교회 안에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삶의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이후 다니엘 박 선교사가 ‘목회자, 남편과 아버지로 다시 서다’를 주제로 한 목사 세미나 강의를 통해 목회자의 정체성 회복과 가정·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사로 훈련받은 다니엘 박 선교사는 결혼 이후, 사명을 향한 도전 속에서 김준근 장로를 만난 계기를 소개했다. 그는 김 장로로부터 “왜 한국인을 미국에 보내셨는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질문을 받으며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강의에서는 다음세대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그는 “왜 2세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가, 왜 고등학교 졸업 후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마 기도운동을 통해 전국을 다니며 이 문제를 붙들어 왔다고 전했다.

토마스 맵 기자 → 4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런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평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6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료 절감: 최대 90%
2026년 대박
BTS SOLAR DESIGN 213.500.8000

대한에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담임목사 한기홍

기독일보 창립 22주년을 축하합니다!

행복한 교회 (마11:28)
상급 받게 하는 교회 (계22:12)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 (마24:14)

예배 시간안내

주일예배
1부 7:20am
2부 9:10am
3부 11:20am
4부(대학청년) 2:00pm
EM예배 1부 9:00am, 2부 11:20am
금요성령집회
7:30pm
특별새벽예배(일천번제)
월~금 5:15am, 토 6:00am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의 말씀 방송

| | |
|---|---|
| 우리방송 AM 1230 JSTV 미국전역 CH 668(Dishnet) 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헤럴드 | 오전 08:30(주 일) 오전 08:00(주 일) 오후 12:00, 9:00(주일) |
| San Diego Radio Korea | 오후 04:00(월요일) |
| 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헤럴드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 오후 04:30(화요일) 오후 08:00(화요일) |
| CBSTV CH 20.12 | 오전 09:00(수요일) 오후 07:00(수요일) |
| KCBS Chicago AM 1590 | 오전 10:20(수요일) |
| JSTV 미국전역 CH 668 | 오전 06:00(목요일) |
|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Radio Seoul AM 1650 미주복음방송 AM 1190 CTS TV 한국(금) | 오전 09:00(금요일) 오전 05:30(금요일) 오전 11:00(금요일) 오전 05:00(한국시간) |
| Radio Seoul AM 1650 | 오전 06:30(토요일) |

그외 인터넷 방송
KCMUSA.org(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
SBN(Smart Broad Casting Network)
SON Ministry(GMAN Radio)
KCBN (미주기독교방송국)
GKCTV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1000/ www.gracemi.com

CPU, AI 설교 연구소 출범 “세상을 섬기는 설교와 AI”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CPU, 총장 이상명)가 ‘AI 설교 연구소(AI Preaching Institute)’를 출범한다.

AI 설교 연구소는 “AI를 활용하여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설교의 신학적 정체성과 실천적 혁신을 연구·훈련·확산하는 글로벌 허브”를 비전으로 설립되었다. 이 연구소는 릴리 재단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첫 컨퍼런스 “세상을 섬기는 설교와 AI”

첫 컨퍼런스는 “세상을 섬기는 설교와 AI”를 주제로 3월 10일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에서 개최된다.

오전에는 풀러 신학교 김강환 학장(Dr. Sebastian C. H. Kim)이 “설교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지혜서 연구”를, 플러튼 교육국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One Life City Church의 Elliot Chung 목사와 Jay Wu 목사가 “지

역사회를 섬기는 설교와 영적형성 사례”를 주제로 강의한다.

오후에는 20년간 대기업과 연구소에서 엔지니어로 일한 조요셉 박사(Dr. Joseph Cho, LC Lab CEO)가 “설교자를 위한 AI 기초와 귀납적 성경연구 AI 소개”를 강의하며, 이세영 박사(미주복음방송 부사장, AI 설교연구소장)가 “AI for SG”를 강의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목회자, 신학생, 미디어 사역자를 대상으로 하며 등록비는 무료이고 점심이 제공된다. 현장 참석은 선착순 50명에게 한하며, 이후 신청자에게는 온라인 중계 링크가 제공된다. (참가신청: 포스터에 있는 QR 코드)

미주복음방송 ‘동행과 상생’과 연중 협력

AI 설교 연구소는 미주복음방송과 협력해, ‘동행과 상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중 컨퍼런스와 설교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3월 10일 컨퍼런스를 시작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는 AI 설교 연구소를 출범했다.

으로 4월에는 청년사역자 설교와 목회 멘토링 세미나, 5 월에는 설교자를 위한 영상과 AI 아카데미를 이어간다.

이상명 총장은 “본 연구소를 통해 AI에 대한 신학적인 연구 뿐 아니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퍼스널 설교 코칭과 클리닉의 도구까지 나아가는 혁신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연구소 공동대표 송병주 목사(신한침지교회)는 “AI를 통해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목회의 본질에 대한 고민과 설교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본 연구소가 쓰임받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미주복음방송 이영선 사장은 “AI가 가져올 방송의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사역의 현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연구와 컨퍼런스로 목회자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연구소 주요 사역

AI 설교 연구소의 주요 사역은 다음과 같다. 1) NextGen Preaching Forum 설교 세미나 시리즈(연 2~4 회), 12 주 집중 멘토링 프로그램, 연례 컨퍼런스를 통해 다음세대 설교자를 양성한다.

2) Preaching Clinic Lab (PCL) 전문 촬영, 편집, AI 기반 설교 분석, 맞춤형 코칭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설교 클리닉이다. 음성, 표정, 제스처, 설교 구조 등을 AI로 분석하여 설교자 역량 강화를 돕는다.

3) AI 아바타 다국어 설교 시스템 설교자가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설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어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달한다.

조셉 리 기자



어노인팅교회 건강 수명 디자인 강좌

영혼육이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어노인팅 교회(라 크라센타 소재, 신경섭 목사)는 김석민 한의사를 초청하여 건강 수명 디자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2월 1일 주일 오후 1시 15분에 어노인팅 교회에서 개최된다.

신경섭 목사는 “김석민 한의사는 양한방을 두루 공부하고, 수치 데이터로 분석해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를 제공한다. 세미나를 통해 본인의 체질량지수(BMI), 일일 총 에너지 소비량 (TDEE)를 알 수

있고,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는 생활 습관,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트, 활력을 되찾는 방법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개인별 사전 정보(나이, 키, 성별, 몸무게, 활동계수)를 준비해 오면 개별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참가 신청
전화 224-622- 9183
이메일 mcc3694@yahoo.com
주소: 2902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91214

주님의영광교회, 황성은 목사 초청 부흥회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는 2월 6일-8일(금-주일)까지 황성은 목사를 초청해 부흥회를 개최한다. 황성은 목사는 오메가 교회 담임이자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 대표로, 청년 사역과 성

령·부흥 사역에 주력해 왔다. 부흥회는 2월 6일(금)과 7일(토) 오후 7시 30분, 2월 8일(주일) 1·2·3부 예배로 진행된다.
주소: 1801 South Grand Avenue, LA, CA 문의: 213-749-4500

연세대 동문회, 새해 연목회 및 조찬 기도회

남가주 연세동문 목회자회(이하 연목회, 회장 정효남, 부회장 신경섭)와 조찬 기도회(회장 서문준, 부회장 지용덕·Paul Park·박사천)는 지난 1월 24일(토), 조찬기도회와 정기총회를 열고 연합을 다졌다.

이번 행사에는 연세대 남가주 동문회 권기숙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연세 콰이어 권영철 단장 및 단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연목회와 조찬 기도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모임에서는 신년하례회와 정기 총회, 조찬 모임이 차례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모교의 지속적인 발전과 남가주 동문들의 안녕,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했다. 또한, 올해



연세대 남가주 동문회 산하 연목회와 조찬기도회가 새해 연목회를 개최했다.

예정된 정기 세미나와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대규모 행사인 ‘연세 선교 찬양 축제’ 준비를 위해 교류를 활발히 이어갈 계획이라 전했다.

이들은 정기모임과 봉사 활동을 통해 동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선 기자

오픈뱅크 ‘사랑의 크루즈’ 7년만에 다시 출발

지난 2017년 처음 시도돼 3년간 큰 주목을 받았던 오픈뱅크의 ‘사랑의 크루즈’ 이벤트가 7년 만에 다시 부활한다. 오픈뱅크(행장 오상교)와 오픈침지기재단(이사장 최화섭)은 26일, 사랑과 감동을 전하는 ‘사랑의 크루즈’를 올해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픈뱅크와 오픈침지기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우리방송과 엘리트투어, 애드뷰가 특별 협찬사

로 참여해서 진행하게 된다.

‘2026 사랑의 크루즈’는 여름방학 기간인 7월 10일, 롱비치항을 출발해 멕시코 엔시나다를 거쳐 돌아오는 3박 4일 일정의 가족 힐링 크루즈로 진행된다. 1월 26일부터 시작된 사연 접수는 3월 말까지 진행되며, 이후 사연 심사와 가정 방문 등을 거쳐 4월 말 최종 승선 가족을 선정할 예정이다.

크루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

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 제대로 된 여행을 경험하지 못한 가족들의 사연을 제출하면 된다. 사연 접수는 이메일, 우편, 웹사이트 업로드, 카카오톡을 통해 가능하다.

이메일: love@openstewardship.com
웹사이트: love_cruise2026 | Openstewardship
카카오톡: kradio1230
문의 : 213-593-4885, 이메일



제 10대 OC한인여성목사회 회장·이사장 이·취임식

날짜 | 2026년 2월 8일 (주일) 오후 4시30분
장소 | 소명교회 (12206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8)
설교 | 이호우 목사 (OC기독교교회협의회 중경회장)
문의 | 총무 권성연 목사 (714-822-7721)

| 취임 회장 | 이임 회장 | 취임 이사장 | 이임 이사장 | 부회장 | 총무 |
|--------------|-----------------|----------------|------------------|---------------|--------------|
| | | | | | |
| 회장 한수지 목사 | 이임 회장 김선옥 목사 | 이사장 수잔부커 목사 | 이임 이사장 이사라 사모 | 부회장 이복현 목사 | 총무 권성연 목사 |



OC기독교교회협의회
THE KOREAN CHURCH COUNCIL OF ORANGE COUNTY



오렌지카운티장로협의회
THE CHRISTIAN ELDERS ASSOCIATION OF ORANGE COUNTY



오렌지카운티 목사회



오렌지카운티한인여성목사회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인생을 바꾼다”

방재길 목사, 은혜한인교회 신년축복성회서 ‘믿음의 승부수’ 강조



방재길 목사

은혜한인교회가 22일부터 25일까지 신년축복성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회에는방재길 목사(세계로방주교회)가 강사로 초청돼 말씀을 전했다.

방 목사는 24일 저녁 설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과 ‘쓰임 받는 믿음’을 주제로 자신의 신앙 여정과 간증을 나눴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아는

가”라며 “드림은 손해가 아니라 인생을 여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방 목사는 결혼 과정에서 겪었던 장인의 강한 반대와 가정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다. 그는 “결혼을 반대하시던 장인어른께서 첫 손자를 낳은 후 돈 한 다발을 주셨지만, 그것을 열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모두 드렸다”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때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역대상 22장과 창세기 12장을 언급하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드림의 신앙’을 설명했다. 방 목사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고,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며 “성공적인 믿음과 쓰임 받는 믿음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사울과 다윗의 대비를 통해 “사울은 자기 능력 중심의 성공적인 믿음의 모델이었지만 결국 무너졌고, 다

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둔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며 “성공은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지만, 쓰임 받는 믿음은 복이 흘러가게 한다”고 했다.

방 목사는 교회 건축과 사역 현장에서 경험한 여러 기적의 사례를 나누며 “하나님께 자신과 자녀, 사업장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했다. 그는 매월 첫째 주마다 진행되는 사업장 예배를 언급하며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장이 선교의 통로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승부수가 무엇인지 돌아보라”며 “사울의 갑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다윗처럼 나아가라. 2026년 각자의 골리앗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토마스 맥 기자

홍장표 목사, 탈진한 목사들에게 전하는 스가랴서의 위로

텍사스 플라워마운트교회에서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린 달라스 위브릿지 컨퍼런스의 개최예배에서 홍장표 목사(달라스 수정교회)가 스가랴 4장을 본문으로, 탈진과 낙심을 경험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일어서라고 격려했다.

홍 목사는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대적 배경을 설명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으나, 성전 재건은 오랜 정체를 겪었다.

그는 “BC 538년 귀환 후 성전 재건은 시작됐지만 16년 동안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렀다”며, “그 과정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지쳐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 역시 16년간 한 교회를 섬기며 경험한 탈진과 낙심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이어서, 목회자들이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부흥을 기대하지만, 현실 속 찾아오는 재정적 압박, 정체성에 대한 흔들림, 좁아져 가는 상황으로 낙심과 번아웃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목회자 번아웃의 해결책이 스가랴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며, 스가랴가 ‘일곱 등잔이 놓인 순금 등잔대와 기름을 공급하는 관’의 환상을 보았을 때 이 환상에 대해 질문했음에 주목했다.

“질문은 신앙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길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해야 한다.”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숙 4:6)는 선언이었다.

홍 목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정직하게 설 것인가, 라는 화두를 던지며, 목회의 양면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신앙은 애매하고 헛갈리는 부분이 있다. 예수님이 얼마나 헛갈리는 분인가. 본인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내재적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고,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이런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성경에서 바울과 베드로의 자리도 다르다. 목회 대상의 차이도 있지만 구조의 차이도 있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천명의 회심을 경험한다. 바울은 가정집을 돌아다니며, 10명 스무명, 한 명을 붙들고 씨름했다. 목회의 자리가 다르고 형식이 다르다.” 그러면서, 바울, 베드로, 스테판 모두 성령께서 이끄시고 사용하셨으나,

그들 각각 목회의 방식이 달랐다고 분석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온 율법을 요약한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목회에도 우선순위가 있음을 강조했다.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를 포함해서, 부르심이 우선이라는 생각 속에서 내 목회와 사역의 내용을 이차적으로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스가랴서의 ‘큰 산’, 오늘날 목회의 자리에서 큰 산은 무엇인가

이어 홍 목사는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큰 산’을 오늘날 목회 현실에



적용했다. 그는 스룹바벨 앞에 놓인 큰 산이 물질의 문제, 외부의 공격,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벽이었다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재정 문제, 비교 의식, 후회와 좌

절이 큰 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은혜로운 기억에 오늘의 현실이 미치지 못할 때도 좌절과 비참함을 경험한다고 지적했다. **주디 한 기자 → 12면에서 계속**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은목 목사)가 1월 25일(주일) 평화교회에서 월례 기도회를 열었다. 올해 초 교협은 매달 마지막 주일에 기도성회를 열고 기도에 주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외에도 남가주 교협은 3월 26일 신학 세미나, 4월 5일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 5월 중순 스승의 날 위로여행, 8.15 광복 기념 행사, 9월 7-9일 멕시코 단기선교, 10월 16-18일 할렐루야 남가주 기도성회, 10월 22일 목회자 후원 골프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한)코네티컷 USA 이사장
(한)남가주 교회협의회 고문 변호사
(한)제미발행가협회 고문 변호사
(한)중부 상공회의소 이사장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자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풍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 1면 기사 <달라스 위브릿지>에 이어서 그는 “2026년을 바라보며 가족과 교회가 무엇이 변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유로 기도의 약화를 지적하며, 특히 새벽기도와 철야기도가 크게 줄어들었고, 담임 목회자의 기도 헌신이 약해진 것이 핵심 문제라고 분석했다.

박 선교사는 회복의 열쇠로 ‘정



다니엘 박 선교사

체성’과 ‘이름’을 강조했다. 그는 ‘3 NAMES’를 언급하며, “너는 한 아내의 남편이며, 세 자녀의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했다고 전했다. 정신과 의사로서의 경험을 통해서도,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나’를 회복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내러티브 설교

세번째 강의에서 김귀보 목사는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내러티브 설교’ 제목하에 설교의 본질과 목회자의 권위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강조했다. 그는 설교를 말



김귀보 목사(달라스 큰나무교회)

씀이 성도 안에서 실제로 살아 역사하게 하는 통로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자신이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설교 현장에서 목회자들이 종종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성도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나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자체’를 듣고 싶어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목회자들은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면 성도들이 지루해할 것이라 오해하지만, 성도들은 본래 말씀을 기대하며 교회에 온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성경을 ‘렌즈’를 통해 보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렌즈를 통해 성경을 읽으면 평소 보이지 않던 인간의 반응과 내면이 드러나고, 요셉이나 다윗의 이야기가 곧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배와 기도가 무너진 모습, 공허함을 느끼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내러티브 설교”라고 강조했다.

김귀보 목사는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

라 말씀이 성도 안에 들어가 역사하게 하는 것”이라며, “말씀이 곧 성도의 재산”이라고 강조했다. 돈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이민교회 사역의 현실도 솔직하게 나눴다. 다섯 차례의 교회 이전과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기



이성철 선교사(GMC 한미연회)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돈을 계산하기 때문”이라며, 재정 계산을 내려놓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돈 계산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지만 보자”는 원칙을 교회에 심었고, 그 결과 돈이 없는 상황에서 200만 달러 건물을 구입하는 일도 경험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귀보 목사는 “목회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라며, 목회자가 그렇게 살 때 말씀이 성도들 안에 자연스럽게 심겨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도 매주 수요일 교회와 지역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의 숲’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철 목사 저녁 집회

이성철 목사(GMC 한미연회)는 첫째 날 저녁 특별집회 메시지를 통해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조직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세워가시고 움직이시는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목회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이끌고 있는지, 아니



김준일 목사(블레싱교회)

면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응답하며 묵회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예루살렘교회가 사도행전 1장 12~14절 말씀처럼 열흘 동안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 결과 교회가 세워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셨다’는 말씀에서 주의 손은 곧 성령을 의미한다”며, “우리의 설교와 사역 위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지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자훈련을 마쳤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훈련과 삶을 통해 성도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느껴진다”는 고백이 성도들 가운데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묵회라고 설명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말씀을 인용하며, 그는 참된 복음의 감격은 개인의 감정과 생각 안에 머물 수 없고 반드시 흘러가게 된다고 말했다. 복음이 한국과 미국에 전해진 것도 이 흘러넘치는 감격 때문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교회를 세운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를 언급하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며 말씀을 마무리했다.

김준일 목사, 뉴 밸런스

둘째 날 김준일 목사(블레싱교회)는 네 번째 강의에서 ‘뉴 밸런스(New Balance)’를 주제로 개척교회 묵회 현장에서 체득한 묵회 철학과 전략을 나눴다. 그는 개척교회 묵회가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가정·미디어·예배가 균형을 이룰 때 지속 가능한 교회가 세워진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개척교회 묵회의 현실을 언급하며 “개척교회 목사는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행정, 교육, 예배까지 목회자와 사모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 속에서 가정이 무너지는 사례들을 많이 보아왔다고 전했다. 특히 다음세대 신앙 교육을 교회 부서에만 맡기는 구조에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고민 속에서 교회 개척 초기 3년 동안 스스로를 ‘교육부 목사’로 살겠다고 결단했다. 다음세대 신앙 교육은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시작해야 하며, 교회는 이를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그는 “교회의 허리를 담당하는 연령대의 가정은 어느 도시든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했다.

블레싱교회는 개척과 동시에 교육부를 구성했다. 김 목사와 사모, 단 두 명으로 시작한 교육부 사역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운영됐다. 예배는 율동 찬양으로 시작됐고, 이후에는 두 사람이 스킷(연극) 형식으로 말씀을 전했다. 매주 본문 말씀을 연극으로 풀어나며, 때로는 어른들이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나타났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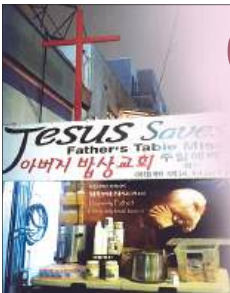
이어 그는 두 번째 균형으로 ‘미디어 묵회’를 제시하며, “앞으로 3년간 미디어 목사로 살겠다”는 또 다른 결단을 나눴다. SNS와 유튜브, 쇼츠 영상이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중요한 통로가 되는 시대 속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교회를 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균형은 ‘예배 중심 묵회’였다. 김 목사는 “앞으로 3년간 예배 담당 목사로 살겠다”고 선언하며, 예배에 대한 분명한 묵회 철학을 나눴다. 그는 “웃으면서 시작해 울면서 끝나는 예배”를 지향한다고 밝히며, 설교 이후 결단의 시간을 찬양으로 충분히 드리는 예배를 실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준일 목사는 “묵회는 결코 쉽지 않지만, 해도 해도 결국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함께 감당해 가기를 바란다”고 강의를 마쳤다. [다음호에 이어서]



원하트 미니스트리가 찬양을 인도했다.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주)대원 전자동 시설로 만든 왕김밥 4종

새우튀김 김밥/매운 2매 김밥/참치 김밥/야채 김밥

교회 스페셜 10pcs 한줄 **\$4.50**

무료 딜리버리 60줄 이상 주문가격

주문문의 949-330-9033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5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LA 213.500.8000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714.702.0151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하는



작은 떡 한 봉지에 새해 인사와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LA 지역

- 일시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 9:30 AM
- 장소 아스티바 헬스 코리아타운
ASTIVA HEALTH KOREATOWN
3250 W Olympic Blvd, #300
Los Angeles, CA 90006
- 대상 선착순 500명 시니어 한정

OC 지역

- 일시 2026년 2월 17일
화요일 | 9:30 AM
- 장소 센터메디컬그룹 직영 클리닉
가든그로브 지점
12372 Garden Grove Blvd, #B
Garden Grove, CA 92843
- 대상 선착순 250명 시니어 한정

센터메디컬그룹

문의연락 888-847-3098 월 - 금 | 9:00 AM - 5:00 PM

[2026 신년 인터뷰2] “제자 세우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남긴다”

[지난호 993호에 이어서]

토요학교를 교육이 아닌 선교로 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한글 교육은 소통을 위한 출발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교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혼자 오지 않고 반드시 부모를 함께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통한 사역이 곧 가정 선교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토요학교에서는 항상 한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가르치며 복음을 분명히 전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을 전도해 교회로 연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런 과정을 통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도 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자란다”, “아이들은 교회에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부모를 데려온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토요학교 사역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토요학교에는 약 150명의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 순히 한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구, 탁구, 축구 등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음악선교사역의 일환으로 현악기반 등 음악 클래스도 열었습니다. 비용은 일반 사설 기관의 10분의 1 수준으로 책정해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유아원도 운영하면서 하루 종일 돌봄이 필요한 가정도 돕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선교라는 전제 아래 진행됩니다. 선교와 무관하다면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처음 나오지 않았던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기 위해 교회를 찾았다가, 자연스럽게 예배 공동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지금 반드시 회복해야 할 한 가지를 꼽아주시다면.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도 많은데 왜 또 개척을 해야 하나까”를 많이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말씀대로만 해서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증명하는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대로 하면 된다고 믿고 목회를 이어왔습니

다. 적용의 방식은 계속 연구해야 할 과제이지만, 기준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나까, 제 말은 잘 안 들을 것 같습니다”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맞다, 네 말은 잘 안 들을 거다. 하지만 네가 내 말을 전하면 그들이 들을 거다”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순조롭더라고요. 그래서 34년 동안 우리 교회는 분열도 없었고, 은혜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같은 믿음’, ‘같은 믿음의 DNA’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차이로 보이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믿음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테크놀로지는 달라질 수 있지만, 말씀의 가치관이 같다면 세대 간의 갈등은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2세들을 목회자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같은 말씀, 같은 신앙으로 훈련받은 지도자가 세워질 때 신앙은 자연스럽게 계승됩니다. 물론 대학 시기에 많은 이탈이 있다는 현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체계적인 제자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면 언어·문화·커리큘럼 차이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이사이드 장로교회도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갈등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영어권 회중(EM)에서 제자훈련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EM은 담당 목회자에게 자율권을 주고 사역을 맡기다 보니, 제자 훈련을 같은 속도로 강조하기가 쉽지 않았던 면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장한 성도들과의 긴장이나 갈등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마다 20~30명씩 제자훈련이 진행되면서 그런 갈등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누가 지도하느냐, 어떤 교재를 쓰느냐, 그리고 지도자의 비전과 가치관이 얼마나 일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치관이 같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은 가치관을 형성하는 길로 가야 KM과 EM 사이의 긴장도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 세대가 함께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 1세와 2세가 각각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세들은 아직 삶을 개척하는 과정에 있고, 1세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세들은 경제적·환경적으로 다음 세대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2세들이 신학교에 진학할 경우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공간과 사역의 장을 열어 실제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동시에 2세들에게도 제자훈련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어권 회중과 고등부를 포함해 매년 약 50명이 제자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자훈련이 교회의 재정·인력 부담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에서 그렇게 된다고 보시는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이 자리 잡으면 인력의 문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순장, 즉 셀 그룹의 리더들이 세워지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교역자 역할을 상당 부분 감당합니다. 한 셀에 8명 정도가 있으면, 그 구성원들을 책임지고 돌보며 연락하고 신방하고 케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일을 교역자가 직접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게 됩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헌신하게 되면, 불필요한 지출이 줄고 선교와 다음 세대에 더 건강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워지면 인력도 부족하지 않고 재정도 부족하지 않게 되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도 교회 재정이 위축되기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열 없이 성장해 온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한 문장으로 말하면, 제자훈련을 통해 성도들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의 핵심 문제가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이듯, 교회도 훈련이 없으면 결국 각자의 배경과 소견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분열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통해 가치관이 말씀으로 정립되면,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 함께 가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잘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훈련을 하기 전에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를 2~3년 고민했는데, 결국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살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자훈련은 생활의 영역까지 구체적으로 다루며 말씀대로 살도록 돕기 때문에,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사역이 확장될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기준이 있습니까. 교회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기준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뜻으로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두 계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만 배부른 공동체가 아니라,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또 선교의 사명 역시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교회의 중심 성구로 삼고, 제자훈련과 선교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를 유지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들을 ‘멘토링’ 방식으로 돕는 사역을 결심하게 된 계기와 흐름이 궁금합니다.

교회가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고, 실제로 정책적으로도 나눔을 실천해 왔습니다. 교회 재정이란 일정한 부분을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면서 교회 건축을 돕거나 사역을 지원하는 일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느낀 것이, 단순히 물질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일어서기 어렵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주는 것’에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방향을 옮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개척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걸여온 길과 원리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멘토링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시작과 과정에서 피할 수 있는 어려움을 줄여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주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 사역이 유럽까지 확장되는 계기가 무엇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유럽에 자주 가서 공부도 했고, 개척 시절에도 “내가 계속 배우지 않으면 교회가 더 건강하게 발전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으로 자주 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럽 교회들이 점점 약해지는 현실을 보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유럽에서도 복음을 전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제자훈련을 유럽에도 심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 과정에서 “네가 초대해라”는 방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외 한 인교회에도 알리게 됐는데 생각보다 여러 나라에서 목회자들이 모이게 되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사역이 확산되었습니다.

이후 런던에서 열리고, 마드리드에서 열리고, 다른 도시들로도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유럽은 한인 인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2세들이 현지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길이 열리면 좋겠다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번아웃을 겪는 시대입니다. 개인적으로 번아웃을 어떻게 관리해 오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던 때를 항상 떠올립니다. “나 같은 사람이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힘 주면 할 수 있다. 너는 충성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생각하면 쉽게 지치거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소명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때의 마음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사모에게 프로포즈할 때도 “하루 라면 3개는 약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또 사모는 받아들였습니다. 남자가 라면 3개 가지고 되겠냐고 했었지만 어디로 부르시든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고, 보장된 삶이 아니라는 각오를 사모도 수용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풍성하게 살게 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고,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 ‘처음’을 붙드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위기 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를 읽을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신앙을 떠나서는 참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 된 공동체이며, 신앙을 붙들여 주는 울타리입니다. 많은 문제는 교회를 등지고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교회를 붙들고,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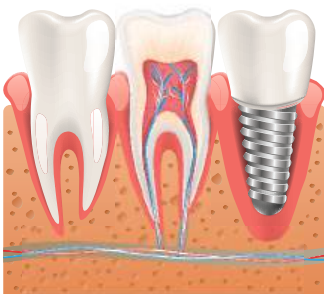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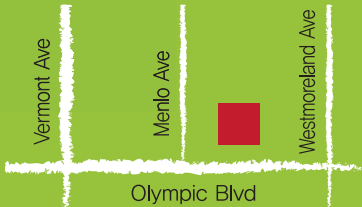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평생건강을
좌우하는
한번의 선택”

부모님께 맞는 의사부터
부모님이 찾는 병원까지

SMG에
있습니다

홍보대사 고두심



SMG 연계 병원

UCLA, 시더스-사이나이, 할리우드 장로병원, 세인트 주드,
세인트 조셉, 애너하임 리저널, PIH 굿사마리탄



SMG 연계 보험사

얼라인먼트, 앤섬, 블루실드, 클레버케어, 휴매나, 헬스넷,
몰리나/센트럴헬스, 스캔, UCLA 어드벤처지, 유나이티드, 웰케어

서울메디칼그룹이 5,500명의 의사와
우수한 병원 네트워크와 함께
당신의 건강을 지켜 드립니다

문의전화 800.611.9862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카카오톡채널에
방문하세요!

이 광고에서 사용된 지표는 SMG가 2025년에 남가주 지역의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 네트워크 규모에 대해 조사한 내부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과 함께 독립된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혜택과 네트워크 규모는 각각의 메디케어 어드벤처지/웰스 플랜과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따라 제한, 제외, 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메디칼그룹 800-611-9862로 문의하십시오.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위한 기도회’ 열려

한미수교 144주년과 한미동맹 73주년 기념

지난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한미 양국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이번 기도회는 한미수교 144주년과 한미동맹 73주년을 기념해 소피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으며, 미 연방 의원과 지방정부 관계자, 경제계 및 교계 인사 등 한미 양국 주요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미국 전역에 내린 폭설로 일부 참석자들이 현장에 오지 못했으나, 영상 메시지를 통해 행사의 취지에 동참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메시지를 통해 “한미동맹은 선교사들의 활동과 한국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들의 희생 위에 형성됐다”며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양국이 영적 회복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 목사는 한미 교류 증진과 기도회 개최 공로를 인



2026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정받아 케런 바스 LA 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이영훈 목사가 2017년부터 이어온 한미 지도자 기도회는 한미 관계를 뒷받침하는 민간 교류의 한

축”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기도회가 재미동포 사회의 중심지인 LA에서 열리게 된 점에 의미가 있다”며, “군건한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을 토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국민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한기홍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의 개회사에 이어 하이드 소토 LA 검사장과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이 축사를 전했다. 박선근 한미우호협회 회장, 황병구 미주한

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회장, 김부곤 SNK 회장도 한미 협력과 교류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백인자 한세대학교 총장은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의 지속성과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사 중에는 한세대학교 ‘한세 콘서트 콰이어’가 특별 찬양을 진행했다.

기도 순서에서는 황의승 국제신학대학원 교수가 한국과 미국의 영적 회복을 위해, 미 육군 데이비드 장 대령이 한미 안보를 위해, 김미경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이사장이 사회적 안정을 위해, 진유철 나성순 복음교회 담임목사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각각 기도했다.

이날 행사에는 6·25전쟁 참전 유공자들도 참석했다. 미서부 6·25 참전 유공자회 이재학 회장은 한국전쟁 참전 경험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겼다. 미 해군에서 복무한 헨리 킴 대령도 기도회 참석 소감을 전했다. 김진영 기자

“세상과 중독, 음란문화 속에서 복음의 자유 배우다”

카도쉬아카데미(설립자 이재욱 목사, 2기 공동대표 최은정·문선애)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경기도 안산 엔케렘수 양관에서 ‘제3차 청소년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세상과 음란문화 그리고 중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는 청소년과 교사 등 19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캠프는 낮에는 교육 중심의 강의 프로그램, 저녁에는 집회와 예배 중심의 영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단기적 감정 고양에 그치는 기존 수련회 형식에서 벗어나, 예배와 교육을 결합한 6년 과정 커리큘럼 캠프로 운영된 점이 특징이다. 카도쉬아카데미는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신앙과 삶의 영역 전반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회예배에서 설립자인 이재욱 목사(역곡 참사랑교회)는 출애굽기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며,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의 영향력 아래 머무르려는 인간의 경향을 지적했다.

이 목사는 “옛사람의 모습은 단번에 제거되지 않으며, 평생 이어지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벗겨져 간다”며 “변화의 속도가 더딜지라도 낙심하

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전체 강의는 김민호 목사(인천 회복의교회)가 맡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라는 주제로 세계관 특강을 진행했다. 김 목사는 성경적 세계관과 인본주의적 사고의 차이를 설명하며, 고대 그리스 문화가 현대 대중문화와 기독교 문화 전반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거짓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대적해왔는지를 짚으며, 그리스도인의 분별력과 신앙적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녁 집회에서는 임재흥 목사(수원동부교회)가 로마서 12장 1~2절을 본문으로 ‘시대를 거스르는 영적 예배자가 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임 목사는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으며, 예배는 예배당을 넘어 삶 전체에서 드러져야 한다”고 말하며, 복음이야말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는 김동민 목사(아산 아인교회)가 약 1시간 10분간 청소년 기도회를 인도했다. 기도회 가운데 학생들은 회개와 결단으로 응답했으며, 참석자 전원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캠프 둘째 날에는 중독과 문화, 세계관을 주제로 한 심화 강의와 교사 세미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박찬희 목사(마가의다락방교회)는 중독을 주제로 전체 특강을 전했으며, 이상원 교수(전 총신대신대원장·카도쉬아카데미 고문)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문화: 세상 문화는 왜 음란한가?’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박재은 교수(총신대학교 조직신학)는 ‘그리스도인은 왜 거룩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문화적 소명을 다뤘다. 노승주 강도사(리폼드미니스트리 대표)는 ‘대중문화 속 세계관 전쟁’이라는 주제로 비판이론과 현대 문화 담론이 청소년들의 사고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번 캠프는 청소년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쉽고 재밌는,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한편 박광서 목



카도쉬아카데미 제3차 청소년 캠프 참가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카도쉬아카데미

사(큰사랑교회)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대의 징조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카도쉬아카데미 측은 “이번 캠프는 세상 문화를 단순히 비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

에서 자유와 분별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데 있다”며 “다음 세대가 신앙과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중언, 김한오, 류종길, 민종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모, 구봉주, 국윤권, 김중규, 류승렬, 박은성, 박일서, 오명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중, 써니킴

■ 발행인

이인규

■ 편집국장

맹창현

■ 고문변호사

정찬용

■ 지사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크랜드, 시애틀, 텍사스

■ 대표전화

T.(213) 739 - 0403 /

■ E-mail

chdailya@gmail.com

■ 주소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TRUSTED SCHOOL IN TOWN



EDUCATE ENABLE EQUIP

K-12 PRIVATE CHRISTIAN SCHOOL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CONTACT US!
(213) 487-5437
ncahuskies.org

나이지리아 카두나주 교회 예배 중 집단 납치 의혹 확산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나이지리아 카두나주 남부 지역에서 교회 예배 중 대규모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주정부와 경찰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며 진위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고 20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지 교계 지도자들과 인권단체들은 다수의 교인이 무장세력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고 증언했으나, 당국은 공식 접수된 사건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카두나주 카주루(Kajuru) 지방정부 관할 쿠르민 왈리(Kurmin Wali) 마을 일대에서 풀라니(Fulani) 무장 민병대로 추정되는 세력이 교회 예배가 진행 중이던 3곳의 교회를 동시에 습격했다는 보고가 나왔다. 지역 대표와 교계 인사들에 따르면 무장 괴한들은 예배 도중 교인들을 인질로 붙잡은 뒤 인근 수풀 지역으로 강제로 이동시켰다.

납치 규모 두고 엇갈린 주장…100명 이상에서 170명대까지

CDI는 납치된 인원의 규모를 두고는 엇갈린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카두나주 의회 지역구 의원인 우스만 단라미 스팅고(Usman Danlami Stingo)는 외신에 177명이 납치됐고 이 중 11명이 탈출했다고 밝혔다. 반면 연방 하원 카주루·치쿤(Kajuru/Chikun) 지역구의 펠릭스 바구두(Felix Bagudu) 의원은 지방정부 관계자들과의 브리핑 이후 납치 인원이 100명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전했다.

북부 나이지리아 기독교협회(CAN) 회장인 조지프 존 하얏(Joseph John Hayab) 목사는 언론에 최소 172명의 기독교인이 세 교회에서 납치됐으며 이 가운데 9명이 탈출했다고 밝혔다. 하얏 목사는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연락을 인용해 무장세력들이 예배 중인 교회에 난입해 신자들을 붙잡아 숲으로 끌고 갔다고 설명했다.

생존자 증언 잇따라…무장 괴한, 군복 차림과 검은 복장 흔해

사건 발생 지역인 쿠르민 왈리의 아파고(Afago) 구역은 마로(Maro) 마을 남쪽 약 13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 서쪽에는 다수의 인질이 억류된 수용지가 존재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미국 소재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매체 트루스 나이지리아(Truth Nigeria)는 목격자들을 인용해 공격자들이 무장한 풀라니 민병대였다고 전했다.

당시 현장에서 탈출한 한 에큐멘컬교회(Evangelical Church Winning All·ECWA) 교인은 오전 10시께 총성이 울렸고, 괴한들이 예배자들에게 바닥에 엎드리라고 지시한 뒤 집단 이동을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일부 공격자들은 검은 로브와 터번을 착용했으며, 일부는 허름한 나이지리아군 위장복을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10세 아들과 함께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고 밝혔다.

교회 지도자들 우려 표명…

카두나주 현지 목회자인 케네스 오노네제(Kenneth Ononeze) 목사는 단일한 주일 예배 시간에 이처럼 많은 인원이 납치됐다는 주장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실제 구조 작업에 나서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기독교인 대상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현

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드온 파라-말람(Gideon Para-Malam) 목사는 이번 공격이 가톨릭 교회와 ECWA 교회, 오순절 계열인 체루빔-세라핌 교회를 겨냥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 곳의 교회가 동시에 포위됐으며, 고령자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일부 교인만 현장에서 풀려났다고 전했다.

경찰·주정부는 전면 부인…“신고 접수조차 없어”

반면 카두나주 경찰은 사건 자체를 부인했다. 무함마드 라비우(Muhammad Rabi'u) 카두나주 경찰청장은 언론에 해당 지역에서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는 어떤 공식 보고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납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다면 구체적인 이름과 신원을 제시해야 한다며, 관련 보도는 허위라고 말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기독교 연대단체인 크리스천 솔리더리티 월드와이드 나이지리아(CSW)가 납치된 교인들의 예비 명단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CSW 관계자들은 가족들에게 먼저 사실을 알린 뒤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 조사 차단 논란…군·행정 차량이 접근 막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CSW 조사단과 다른 인권 활동가들이 쿠르민 왈리 마을로 이동하던 중 군과 지방정부 차량에 의해 길이 차단됐으며, 현장 접근이 제한됐다. CSW 나이지리아 대변인 루벤 부하리(Reuben Buhari)는 조사단이 전화로 교회 관계자들과 연락을 취했으며, 이들이 무장세력이 교인들을 집단으로 끌고 갔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이후 일부 고령 여성과 어린이들이 풀려났고, 추가로 11명이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월 19일 주정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 이후 지방 당국과 보안 관계자들은 언론에 납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당국은 해당 보도를 공포 조장으로 규정했다.

지역 지도자와 시민단체는 납치 사실 주장 지속

AP통신은 쿠르민 왈리 마을의 촌장 이사쿠 단아주미(Ishaku Dan'azumi)가 자신 역시 탈출한 생존자 중 한 명이라며,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납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치쿤·카주루 적극 시민회의(CKACC)도 인질 명단을 공개했으나, 해당 명단은 독립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다. 나이지리아 기독교협회(CAN) 역시 납치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고 현지 고위 기독교 지도자가 익명을 전제로 밝혔다. 풀라니 무장세력 폭력, 나이지리아 전역으로 확산

CDI는 이번 논란이 나이지리아에서 지속되고 있는 풀라니 무장세력과 기타 무장단체에 의한 민간인 공격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종교자유 감시기구(ORFA)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풀라니 무장세력과 연계된 집단은 보코하람과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지부(ISWAP)보다 더 많은 민간인을 살해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은혜 기자

북한군 포로 2명 “한국으로 가고 싶다” … 우크라이나 억류 중 호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중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한국행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말했다.

김영미 국제분쟁전문 PD는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수감 시설에서 북한군 저격수 리모(27)씨와 소총수 백모(22)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해당 내용은 20일 MBC PD수첩과 경향신문을 통해 공개됐다.

리씨는 “한국에 가겠다는 의향은 확실하다”며 “실제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마음은 매우 간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

북한에서 포로는 역적과 같고,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괴롭다”며 동료들이 포로를 피하기 위해 자폭했던 상황도 전했다.

백씨 역시 “조선 군인은 포로가 될 수 없고, 포로가 된 것 자체가 죄”라며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그는 “조선이 아니라 한국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씨는 2015년 입대해 2024년 10월 러시아로 파병됐고, 백씨는 2021년 입대해 2024년 11월 폭풍군단 소속으로 러시아에 보내졌다. 이들은 지난해 첫 언론 인터뷰 이후 여러 차례 한국행 의사를 밝혀왔으며, 이번 증언을 통해 그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홍은혜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내세대에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E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세울 발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 소년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세브기도회 월-금 오전 6: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주일 오후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세브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우**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3435 Wilshire Blvd. # 570(SF), L.A. CA 90010
T. (323)610-6989, www.woorigachurch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종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일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한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가명훈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GRO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창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2부예배 9:30am
주일3부예배 11:15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일EM예배 11:00am
수요찬양집회 7:30p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대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토요일성경인사새벽기도회 오전 5: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부흥회 토 오전 8: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매달 마지막 금요일)

교회학교
영아유치부, 원아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수요말씀강화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1:4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1:4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2부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화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최원일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英 기독교인 간호사, 트랜스젠더 호칭 논란으로 정직됐다



제니퍼 멜. © CLC

트랜스젠더 환자를 부르는 방식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였던 기독교인 간호사에 대해 병원이 더 이상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서리주 칼살턴에 위치한 세인트 헬리어 병원(St Helier Hospital)은 트랜스젠더 환자와의 갈등 이후 '자료 유출(data breach)'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던 간호사 제니퍼 멜(Jennifer Melle)에 대해 징계를 철회하고 복직을 결정했다.

멜은 12년간 근무해 온 병원에서,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트랜스젠더 환자를 'Mr'로 호칭하고 여성 대명사 사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서면 경고를 받았다. 이후 해당 환자가 멜에게 인종차별적 언사를 사용하고 신체적 위협을 가해 병원 보안 요원이 개입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기독교 법률센터(CLC) 측은 밝혔다. 해당 환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멜은 유급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병원 측은 그를 '잠재적 자료 유출'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동시에 '미스젠더링(misgendering)'을 이유로 간호조산 위원회(Nursing and Midwifery Council)에 회부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작가 J.K. 롤링을 비롯해 클레어 쿠틀리, 로지 더필드, 대니 크루거 등 여야를 아우르는 국회의원들과, 트랜스젠더 생물학적 남성과 탈의실을 공유하도록 강요받았다가 최근 법원에서 승소한 달링턴 간호사들, 스코틀랜드 간호사 샌디 페기 등으로부터 공개적인 지지를 받았다.

멜은 징계 심의에서 병원 측으로부터 모든 혐의가 철회됐으며, 세인트 헬리어 병원으로 복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심의 직후 엡섬(Epsom)에서 기자들과 만난 멜은 "깊은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낀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통해 반드시 배워

야 할 교훈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예수님께 무엇보다 먼저 감사드린다"며, 가장 힘든 순간에도 자신을 지지해 준 이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이어 "어떤 간호사도 내가 겪은 일을 다시 겪어서는 안 된다"며, 웨스트 스트리팅 보건장관에게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현실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부합하는 정책을 NHS 전반에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멜은 최근 달링턴 간호사들의 법적 승리를 언급하며 "상식과 이성"이 마침내 NHS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며 "이는 분명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달링턴 간호사들, 샌디 페기, 그리고 내가 겪은 일을 다시는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전문적 판단을 지키며, 신념을 따라 산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병원 측은 추가적인 내부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지만, 멜이 제기한 고용 재판은 오는 4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독교 법률센터의 지원을 받는 멜은 엡섬 앤드 세인트 헬리어 대학병원 NHS 트러스트를 상대로 괴롭힘, 차별, 보복, 그리고 양심·사상·종교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멜은 "이 장이 마무리되고 있음에 감사하지만, 나와 앞선 사례들의 교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NHS는 직원들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지키며, 어떤 간호사도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불가능한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나는 감사하고, 안도하며, 앞으로를 희망한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신실하셨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오는 4월 열릴 고용 재판을 담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덴마크 선교 단체 통합 논의 난항
재정·신학 이견으로 2026년 봄 재협상

덴마크의 주요 선교 기관 두 곳의 통합 추진이 재정 및 신학적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론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양측은 2026년 봄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덴마크 선교협의회(DMR·Dansk Missionsråd)와 교회개발협력센터(CKU·Center for Church Development Cooperation)는 1986년 이전까지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되다 CKU가 별도의 프로젝트 부서로 분리된 이후, 다시 통합할 가능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통합을 지지하는 측은 선교, 신학, 개발 사역 간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 반대 측은 상이한 재정 구조와 교회-국가 관계 규정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DMR은 덴마크 내 여러 선교 단체를 대표하는 우산 조직으로, 이들 단체와 덴마크 국교회(Folkekirken)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DMR은 최근 공지를 통해 2025년 5월 열린 이사회 이후, 협의회의 향후 방향에 대해 다양한 네트워크와 논의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DMR은 "이번 논의는 1986년 CKU가 '프로젝트 부서'로 설립되기 전까지 하나였던 구조를 다시 있는 문제와 관련돼 있다"며 "그러나 과거의 구조를 그대로 되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년간 점점 중요해져 온 협력과 사역을 지속·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나간을 통합 논의가 결론에 이르지 못해 2026년 봄까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통합 논의가 지연된 배경에는 비용 부담과 신학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덴마크 정부 규정은 개발 원조와 선교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DMR 소속 단체들은 사회적 지원과 선교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현재 DMR은 재정 적자에 직면해 네트워크 유지와 신학적 기능을 지속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CKU는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으나, 보다 분명한 교회적·신학적 정체성을 확보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11월 12일 옌센(Odense)에서 열린 DMR 대표자 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DMR과 CKU는 1년 넘게 통합을 추진해 왔지만, CKU 이사회가 제안된 통합 모델이 비용이 많이 들고 행정적으로 복잡하다는 이유로 논의를 중단했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선교 신학을 정관에 공식화해야 하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록은 향후 선택지로 CKU와의 협상 지속, 다른 단체와의 협력 모색, DMR의 영향력 약화를 감수한 비용 절감, 신규 자원 확보, 나아가 조직 해산 가능성까지 포함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DMR 관계자들은 CKU가 보다 분명한 교회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점이 통합에 대한 관심의 배경이라고 설명하며, 다수의 회원 단체들이 이미 선교와 개발을 통합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남은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중한 낙관론도 함께 제기했다.

이미경 기자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미국 교회 출석자 다수, 복음의 핵심을 잃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댄 델젤 목사의 기고글인 “왜 미국 교회 출석자들의 64%는 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을까?(Why are 64% of American churchgoers wrong about Heaven?)”를 20일(현지시각) 게재했다.

델젤 목사는 네브래스카주 파빌리온에 있는 리디머 루터 교회(Redeemer Lutheran Church in Papillion)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오늘날 미국 교회 강단에서는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분명히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 조지 바나(George Barna) 박사와 데이비드 클로슨(David Closson) 박사가 진행한 2025년 연구는 그 심각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조사에 따르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천국에 간다”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술에 정확히 동의한 미국 교회 출석자는 36%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다수의 교회 출석자들은 누가 천국에 가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왜곡된 이해를 갖고 있었다. 이 연구는 몇 달 전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를 통해 공개됐다. 실제로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간다”(14%), “모든 사람이 정화 과정을 거친 뒤 천국에 간다”(12%), “잘 모르겠다”(12%),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간다”(11%), “죽으면 존재가 사라진다”(7%), “환생한다”(7%), “지옥에 간다”(2%).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약 3분의 2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조차 잘못 이해하고 있을까. 만약 목회자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있다면, 성경의 진리가 가르쳐지는 교회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교회 출석자의 절반에 가까운 49%는 누가 천국에 가는지 알지 못하거나,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믿거나, 모든 사람이 정화된 후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수치는 충격적이다. 더구나 이들은 교회에 실제로 출석하는 사람들이다. 가장 큰 문제는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복음과 성경의 진리에 굳게 뿌리내리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미국 교회 출석자들 사이에 이처럼 심각한 영적 혼란이 존재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남침례신학교 교수 더스틴 벵게(Dustin Benge) 박사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거대한 플랫폼이나 급진적인 아이디어, 혁명적 열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지역 교회에서 섬기



댄 델젤 목사. ©기독일보 DB

고, 진리 위에 서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해 세상을 뒤집으신다”고 말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의 능력이 없었다면 아무런 영향력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사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며,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다. 설교자는 복음의 진리(요한복음 3장 16절)와 천국과 지옥의 실재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한다. 17세기 신학자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 1615~1691)는 “나는 다시는 설교하지 못할 사람처럼,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말하듯 설교한다”고 말했다. 미국 교회 출석자의 64%가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극적이다. 이런 영적 질병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이미 신앙의 열차가 탈선한 상태다. 만약 설교자가 도덕 감이나 자기계발식 메시지만 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복음을 믿고 전하는 교회 공동체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바나 연구에서 당신은 어디에 속하는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약 3분의 1(34%)에 속하는가. 아니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미국 교회 출석자 3분의 2에 속하는가. 일부 응답자는 마음속 생각과 다른 답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는 자신이 실제로 믿고 있는 바를 솔직하게 응답했을 가능성이 크다. 안타깝게도 많은 미국 교회 출석자들은 여전히 성경적 구원의 메시지 앞에서 길을 잃고 혼란 속에 머물러 있다. 자신이 받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다. 만약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영적 지도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확신과 복음에 기초한 능력 있는 설교가 회복되도록 간구해야 한다.

최승연 기자

美테네시주서 평생 무료 진료 헌신... 김유근 박사 별세, 향년 81세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서 수십 년간 무보험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 진료를 이어온 김유근 박사(미국명 톰 김)가 지난 16일 별세했다. 향년 81세다. 김 박사는 국적과 인종, 형편을 가리지 않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돌보며 지역 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녹스빌 한인회와 ‘김 헬스센터’는 18일 공동 성명을 통해 김 박사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고인이 평생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미국인과 한국 동포들을 위해 무료 진료 봉사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성명은 김 박사가 전문성과 시간을 아낌없이 나누며 지역 사회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김 박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1961년 미국으로 건너가 오하이오대학교와 테네시대학교에서 수련 과정을 마쳤다. 이후 1981년부터 테네시주에서 혈액종양학 전문의로 활동했다. 그는 의료보험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현실을 접한 뒤 봉사 의료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1993년 녹스빌에 ‘미국 무료 의료 진료소’를 설립하는 계기로 이어졌다. 김 박사의 진료소는 이후 네 곳으로 확대됐으며, 의료보험이 없는 저소득층 환자 약 7만여 명이 진료 혜택을 받았다.

김 박사는 의료 봉사 공로를 인정받아



김유근 박사. © 뉴스스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고, 미국 영웅상과 연방수사국 커뮤니티 리더십 상 등도 수상했다. 그가 설립한 무료 진료소는 2023년 ‘김 헬스센터’로 이름을 바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또 그는 녹스빌 한인회장을 지내며 지역 한인 사회를 이끌었고, 2005년 테네시주 국립묘지에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비를 건립하는 데 기여했다.

인디아 킨캐년 녹스빌 시장은 “무보험 테네시 주민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운 김 박사의 유산은 앞으로도 세대를 넘어 이어질 것”이라며 애도의 뜻을 밝혔다. 김 박사가 남긴 나눔과 헌신의 정신은 ‘김 헬스센터’를 통해 지역 사회에 계속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홍은혜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8:15AM - 2부 11:00AM - 토요일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이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일예배 화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KM)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3-5) 오전 10:30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기돌)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물고기)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양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오영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한여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이충환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목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베이크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송금관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 풍요로운 삶 오전 9:30
화요일 3:33 기도회 매일 둘째주 오전10:30 목요일 TEE 영동 Zoom 오후 7:30
목요일 가리전도 오전 10:00 한인타운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u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전12:15 (한국어, 교목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목)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송삼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일참회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조용철 담임목사**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임명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세신사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김광석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금요일예배 저녁 7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라운드락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kpc.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8
E-Mail: ine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전문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초강력 정력제 \$70

배에는 수반제거와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원료 100%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아의 정성이 한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OP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불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Cal U Tech,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모집

California University of Technology(Cal U Tech)는 AI를 활용해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유튜브 채널 크리에이터 마스터클래스 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8주 만에 콘텐츠 완성

본 과정은 AI 기반 콘텐츠 제작 교육을 핵심으로, 유튜브 채널 개설부터 콘텐츠 기획, 영상 스크립트 작성, 썸네일 제작, 영상 편집, 업로드 및 채널 성장 전략까지 전 과정을 8 주간 실습 중심으로 진행한다.

수업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AI 글쓰기 도구, 이미지 생성 도구, 영상 편집 보조 AI 등 최신 AI 기술을 수업에 적용하여, 영상 제작 경험이 없는 초보자도 콘텐츠를 완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복잡한 기술이나 고가의 장비 없이도 스마트폰과 기본적인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



하다.

Cal U Tech 대표인 제임스 구 박사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유튜브 콘텐츠 제작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며 “이번 마스터 클래스는 연령, 전공, IT 경험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메시지와 아이디어를 영상 콘텐츠로 구

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용 교육”이라고 밝혔다. 수강생들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운영하며, 개인 브랜딩, 교육 콘텐츠, 사역, 비즈니스 홍보 등 다양한 목적에 맞는 채널을 직접 제작하게 된다.

과정 수료 시에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본 과정은 학력이나 사전 경험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정원 충족 시까지 수시 등록이 가능하다.

문의 및 등록 안내

웹사이트: <http://calutech.us>
주소: 1442 Irvine Blvd. STE 108, Tustin, CA 92780
Tel: 657-347-4556, 714-393-4595(문자)
이메일: info.calutech@gmail.com

→ 1면 기사 <美 교회 2,000%에 이어서

데이비스는 “젊은 세대는 스스로 정체성과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받아 왔지만, 이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라며 “그들은 어느 정도 무너진 기독교적 가치와 제도의 폐허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세대는 강한 도덕적 직관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초월적이고 영원한 토대에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직관의 많은 부분이 사실상 기독교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젊은 세대가 답을 찾는 것뿐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갈망 역시 교회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술과 알고리즘에 익숙한 세대지만, 기술이 자신들을 사랑하거나 친구가 되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킹스처치 DC는 주일 예배 외에

도 도시 전역에서 10~20명 규모로 모이는 소그룹 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REC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스 스케이팅, 피클볼 대회, 댄스 모임 등 다양한 교제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데이비스는 “사람들 사이의 인간적인 관계와 우정을 회복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다”며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니지만, 그 갈망이 결국 복음으로 인도한다. 복음은 그런 관계들을 실제로 만들어 낸다”고 말했다.

→ 3면 <홍장표 목사>에 이어서

특히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외부의 산이 아니라 우리 안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마가복음 11장의 무화과나무 사건(마가복음 11:12-14, 20-21)을 언급하며, 겉모습은 있으나 주님이 드실 열매가 없는 신앙의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무화과나무를 왜 하루를 못 참고 저주하시는가?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은 무화과나무가 아니다. 그것이 그 시대 신앙인들의 현주소, 믿음의 삶의 현주소였다.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주님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없었다.”

홍 목사는 예수님께서 ‘산을 옮

기는 믿음’에 대해 말씀하신 직후 ‘용서’를 명하신 점에 주목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길 원하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할 때, 큰 산은 평지가 될 것”이라고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단신

▶ 엘바인 베델교회(김한요 목사)는 설립 50주년을 맞아 오는 2월 1일(주일) ‘Go & See Mission 2026’을 주제로 미션의 날을 개최한다. 디아스포라 선교 대회가 함께 진행되며, 선교 현장 사역과 교회 간 협력 방안이 공유될 예정이다.

주일 1~3부 예배 중에는 선교사 사역 보고와 기도제목이 소개되고, 기도·후원·직접 참여를 위한 선교 헌신 작정이 이

뤄진다.
일시: 2월 1일(주일) 1-3부
장소: 본당 및 코트야드
문의: 황세현 장로 (949) 648-1907
▶ 웨스트힐 장로교회는 오는 2월 13일(금) 오후 7시 30분에 본당 1층 예배실에서 싱어송 라이터이자 CGNTV ‘작은 숲 콘서트’ 진행자인 나무엔 콘서트를 연다.
▶ 미주평안교회는 2월 15일

신원동성결교회 고신원 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3월 6일-8일(금-주일)까지 이해진 목사(벤엘교회)를 초청해 부흥회를 연다.
▶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는 2월 22일(주일) 오후 1시 드림스 센터에서 학생들과 부모를 대상으로 ‘제2차 드림 링크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문인 3명을 초청해 각 분야를 소개하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학과 학습 준비 등에 대해 나눈다.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전기세 50~90% 절감 *

FRE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합니다.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5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LA 213.500.8000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OC 714.702.0151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강준민 목사

거룩한 불만족과 자족 사이에서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거룩한 불만족과 자족의 조화 속에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거룩한 불만족과 자족은 서로 모순처럼 보입니다. 두 개념 사이에는 분명 긴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긴장 속에서 오히려 신비롭고도 성숙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거룩한 불만족에 대해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 3:12-14).

거룩한 불만족은 상황에 대한 불평이나 환경에 대한 불만이 아닙니다. 거룩한 불만족이란 하나님 앞에서 아직 온전한 성숙에 이르지 못했음을 깨닫는 영적 자각입니다. 제 생각으로,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그는 이미 깊은 경지에 이른 사도였습니다.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계시를 받았고, 복음을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아직도 성장해야 하며, 아직도 더 성숙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아직 온전함에 이르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그의 겸손을 보여 줍니다. 바울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 다. 그는 예수님을 더욱 갈망했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는 멈출 줄 모르는 선교의 열정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지닌 사람은 안주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합니다. 방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 G. K. 체스터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이 걸리기 쉬운 병 중 하나는 자신이 매우 잘 해 나가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생각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지닌 사람은 평생 학습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책을 가져오라”(딤후 4:13)고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주신 선물 중의 하나는 성장 본능입니다. 사람은 성장할 때 기뻐합니다. 배움과 훈련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성장은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성장을 멈추는 순간, 삶은 서서히 죽기 시작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딤후 4:15). 저 역시 거룩한 불만족을 품고, 계속 책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서점에 들러 책을 구입했습니다. 책을 사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때마다 놀라운 기쁨을 경험합니다. 한편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자족에 대해 말합니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빌 4:11). 그는 지속적인 성장을 갈망했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는 자족했습니다. 그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딤후 6:6). 자족은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아담의 원죄와 함께 태어난 인간의 본성은 불만과 불평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선악과만 금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바라보며 불만을 품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족을 잃은 그들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자족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족을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

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 4:12).

자족이란 외적 조건에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 내적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평안입니다. 자족은 체념이나 포기나 아닙니다. 자족은 더 이상 바라지 않겠다는 자포자기나 아닙니다. 자족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 안에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자족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영성 훈련을 통해 익히는 영적 기술입니다. 바울의 자족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맺힌 열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이 말씀은 자기 확신이나 성공 선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대한 철저한 의존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에 만족할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장 부요한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만족은 가장 큰 부요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족은 집착하던 것을 내려놓을 때 경험하는 자유입니다. 자족의 비밀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가 자족을 낳고, 자족은 더 깊은 감사를 낳습니다. 자족은 아무 것도 필요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상태입니다. 거룩한 불만족과 자족의 균형 속에 살아가십시오. 거룩한 불만족을 품고 멈추지 말고 성장하십시오. 동시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사시길 빕니다.

진유철 칼럼

나의 우선순위는?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비엔나 의과대학에 이러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외과 의사이면서 교수인 분이 의과대학을 지망해서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앞에 놓고 첫 번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입학 후 첫 번 강의에 들어온 학생들은 긴장한 가운데 교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수님은 “여러분은 이제부터 책임 있는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훌륭한 외과 의사

가 되려면 적어도 중요한 두 가지 자질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모두가 심각한 얼굴로 교수를 쳐다보며 경청했습니다. “첫째는 역겨운 냄새와 더러운 분비물과 썩은 고름 같은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참 끔찍하지만은 외과 의사는 그러해야 할 것이라며 학생들 모두가 인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민한 관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교수는 더럽고 냄새나는 고름이 담긴 그릇에 자기 손가락을 푹 담갔다가 꺼내서 입으로 핥았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앞으로 나와 해보라고 하니까 역겹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학생들은 당연히 그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씩 하나씩 나와 그 더러운 곳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핥았습니다.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교수님께서 평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첫째 자질에 대해서는 아주 우수하게 통과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자질에 대해서는 형편이 없습니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때 교수님은 말하기를 “나는 이 더러운 곳에 넣었던 손가락이 아닌 다른 손가락을 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보지 못하고 더러운 손가락을 핥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먼저는 전적인 순종으로 자신을 맡기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순종하는 가입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모든 일을 다 잘하고 있었지만 단 하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므로 영이 죽고 죄와 사망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은 불순종의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동지옥에 갈 인생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

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5:19)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자유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어떤 학생이 있는데,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운동도 잘하는데 부모의 말씀과 훈계를 안 듣는다면 분명히 잘못입니다. 성도도 교회 봉사, 찬양도 잘하고 매너도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면 다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2026년 나의 우선순위는 천지는 없어져도 일점일획 변함없는 진리의 성경을 먼저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롬!

2026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or the Church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 음 대 학 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학(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Ci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3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aurahell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Th.M 신학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ea@itsla.edu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새해맞이
세일즈 이벤트



NEW 2026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6 HYUNDAI
Elantra
Hybrid

0%

APR Financing
(차종에 따라서)

72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NEW 2026 HYUNDAI
Ioniq 9
Limited



NEW 2026 HYUNDAI
Santa Fe
Calligraphy



NEW 2026 HYUNDAI
Ioniq 5
Limited RWD

함께 일할 세일즈맨 구합니다!

한인 메카닉 서비스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Frank Kim 323.823.0682



Sean Kim 213.605.2886 Jae Lee 714.319.4611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목동 칼럼

정교분리와 강요된 교회의 침묵



신 병 옥 목사
미라클LA교회
비전 50 선교회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표현이 유난히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그 사용 방식은 점점 본래의 의미에서 멀어지고 있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헌법적 장치이지, 국가 권력을 성경의 기준으로 비판하는 교회의 입을 봉쇄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정교분리는 마치 교회에 침묵을 요구하는 규범처럼 적용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교분리 원칙을 근거로 종교법인의 해산, 설립허가 취소, 조사권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고 한다. 개정안은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을 포함해 총 12인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정교분리 원칙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시 종교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나 해산을 가능하게 하고,

주무관청에 장부·서류 제출 요구와 조사·검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 나아가 의심되는 경우 영장 없는 조사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되었고, 해산된 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비판자들은 이러한 입법 흐름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 즉 국가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역행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별 법안의 찬반을 넘어, “국가가 어디까지 교회의 신앙적·도덕적 발언을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최근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는 손현보 목사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는 현재의 권력과 정권을 비판했다는 과실죄(?)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구속 이유가 없음에도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특정 목회자의 언행에 대한 이념이나 정치적 호불호가 아니라, 교회와 목회자의 성격적, 신앙적 배경의 발언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대한 국가 권력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20세기 독일의 디트리히 본회퍼는 이 문제를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한 인물이었다. 나치 정권은 질서와 안정, 국가 재건을 명분으로 교회를 체제 안으로 끌어들었다. 국가에 협력하는 교회는 보호받았고, 침묵하는 교회는 안전했다. 많은 교회가 이를 ‘

현실적 선택’이라 여겼다. 그러나 본회퍼는 달랐다. 그는 국가가 절대적 권위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순간, 교회가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공범이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침묵은 죄다.” 본회퍼의 저항은 정치적 선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경적 양심의 문제였다. 그는 히틀러 체제에 협력하지 않았고, 결국 그 대가로 생명을 잃었다. 오늘 우리는 그를 체제 전복을 꿈꾼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국가 권력을 상대화한 목회자로 기억한다. 만약 오늘의 기준을 그에게 적용한다면, 본회퍼 역시 ‘정치에 개입한 종교 지도자’로 분류되었을지도 모른다.

성경은 이보다 더 오래된 증언을 우리에게 전한다. 세례요한은 헤롯 왕의 죄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다. 그것은 정권 교체에 위한 선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권력을 판단한 예언자적 외침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투옥과 참수였다. 세례요한은 정치 권력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 다만 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을 뿐이다. 오늘날의 잣대로 본다면, 그는 정치와 종교의 경계를 넘은 인물로 낙인찍혔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모든 경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성전에서 종교와 권력의 결합에 분노하시어 환전상의 책상을 뒤엎으셨고, 지도자들의 외식과 위선을 공개적으로 책망하셨다. 그의 이러한 진리의 증거는 진리는 언제나 권력자들을 불편하게 만

들었다.

결국 예수는 “신성모독,” “반역을 꿈꾸며 백성을 선동하는 자”라는 고발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악의적 권력과 충돌한 진리의 결과였다.

인간의 욕망에 의한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 많은 경우 교회는 대개 탄압으로 무너지지 않았다. 대신 ‘합법’, ‘질서’, ‘공익’이라는 언어 속에서 점진적으로 길들여졌다. 국가가 노골적으로 교회를 박해할 때보다, 교회를 관리하고 통제하려 할 때가 더 위험했다. 그리고 교회가 침묵하는 사이, 성경과 진리가 기준이 아닌, 권력이 점점 교회의 기준이 되었다.

성경 중심의 교회는 특정 정당의 선거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이 죄라 말하는 것을 죄라 말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 국가 권력에 대한 도덕적·신앙적 비판까지 정치 범죄로 규정하는 순간, 정교분리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다. 정교분리는 교회를 침묵시키기 위한 법규가 아니다. 그것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며, 동시에 국가 권력 역시 하나님과 말씀과 보편적 진리 아래 있음을 전제하는 원칙이다. 교회는 언제나 권력의 곁이 아니라, 말씀의 편과 진리의 편에 서야 했다. 그리고 훗날 역사는 다시 묻게 될 것이다. “그때, 성경과 진리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는 왜 침묵하였는가?”

구봉주 칼럼

축복의 원리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하나님 말씀, 성경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더불어 피조된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가 죄로 인해 흑암으로 얼룩지는 바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속죄의 은혜로 완성되었다고 해서 구속사(Redemptive History)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

의 선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온전하신 뜻과 생각과 의지가 담긴 지혜와 계시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사람이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법이며, 올바르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는 지식과 지혜이며, 원리와 원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 가운데, 영적인 원리와 원칙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삶의 분명한 지침과 기준으로 삼아, 철저히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담고 있는 영적 원리와 원칙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지식과 지혜와 상반되는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서”라는 성경적 원리는 세상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원리입니다. 세상 지혜는 “다 잊어라 결국 지나갈 일이다 과거에 묶여 살 필요 없다 훌훌 털어버려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다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방법으로는 마음의 상처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용서”라는 원

리는 사람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치유합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닮아 있는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잠언이 이에 해당합니다. 잠언은 많은 지혜자들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가르침과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유사성은 인간의 모든 지혜는 결국, 그 뿌리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가르쳐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믿지 않는 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써, 세상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한동안 잠언에 기록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앞으로 종종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의 서두에는 잠언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어느 가르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허무맹랑한, 아무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곧 진리요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출발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좋은 지각을 만들어 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늘 자신의 생각과 의지 감정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부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고 존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머리 속, 마음 속에 맴돕니다. 그 말씀이 양심에 부딪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칠 때, 나의 인간적인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죄에서 떠나게 되고,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분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복이 그의 삶에 열매 맺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함은 신앙의 근본이자, 본질입니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위치에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단단히 지지해 주는 등받이 사용으로 편안한 운전을 경험해 보세요.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 장거리 운전하실 경우,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장점 1

나무는 좌석에 기대었을 때 신체에 맞게 윤곽이 잡힘

장점 2

커버 소재는 다이빙 슈트로 제작

장점 3

내구성이 뛰어나며 운전자에 맞게 늘어짐

www.j1mart.com

웹사이트에서 바로 주문하세요.

문의 : 213-434-1170



JOINT and JOINT

고통스럽고 오래가는 관절 통증과 연골 손상엔
귀생당 조인트 앤 조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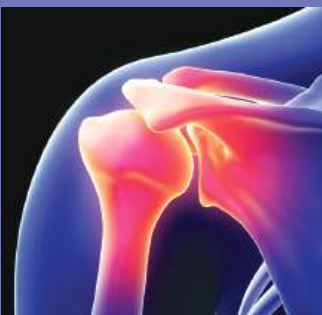


귀생당
조인트 앤 조인트 -
"당신의 관절
다시, 편안하게!"

귀생당 **JOINT & JOINT**는 연골과 관절의 핵심 성분인
천연 콘드로이친과 글루코사민을
주요 성분으로 관절과 연골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무릎 관절



어깨 관절



팔 관절



귀생당 **JOINT & JOINT**는 관절과 연골 건강에 좋은 영양성분들인 **보스웰리아, 터메릭, MSM**의 천연 화합물을 엄선하여 재 구성함으로
관절, 연골 손상 예방 및 보호에 도움을 주고 염증을 완화해서 관절
통증을 줄이고 연골 손상 회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JOINT & JOINT의 효능과 효과

- 관절 연골과 기능 개선
- 혈액이 연골 내로 흡수되어 충격완화 기능에 도움
- 관절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반응을 억제
- 항산화, 항염증 작용으로 염증억제, 통증 완화
- 콜라겐 생성을 개선하여 뼈와 연골을 튼튼하게 유지



213.384.3333

www.kiseidousa.com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제자 양육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상담가

성경에 오류 없다면, 하나님 권위 도전하는 세속 심리학 왜 필요할까?



거짓 심리학 vs 참된 제자양육

폴 타우치스 | 이선숙 역
개혁된실천사 | 316쪽
18,000원

이 책은 곤경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길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 땅의 삶은 죄와 싸우는 전투의 삶이며, 그 와중에 신자들은 여러 가지 곤경에 빠진다

중독 문제, 결혼과 가정 문제, 의심, 신앙적 나태함, 죄책감, 불안감, 우울감, 정서적 문제, 각종 인간관계 문제, 직업과 진로 문제, 경제적 문제, 질병 등 수많은 사안이 시시때때로 교회 안의 신자들을 덮쳐 온다

이번에 개혁된실천사에서 출간된 <거짓 심리학 vs 참된 제자양육 (원서 Counseling One Another)>은 존 맥아더 목사가 “이 책은 정말 제대로다!”라고 추천하고, 존 스트리트 박사가 서론에서 “이 책은 성경적 상담으로 개인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신약성경이 강조하는 바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상담의 신학적 기반을 효과적으로 제공한다”고 말한 것처럼 세속 심리학과 심리 전문가들에게 빼앗긴 상담을 지역교회가, 그것도 성경에 충실한 조언과 격려로 다른 성도를 세우라는 제자 양육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을 성경을 근거로 심어준다.

이제 한국에서도 상담이라는 것이 일반화됐고, 심리학은 대중이 믿고 따르는 종교가 됐다. 미국에서 오래 전 세속 심리학이 교회 안으로 침투한 것처럼, 한국에도 ‘기독교’라는 이름을 단 심리학이 교회 안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심리학과 성경을 적절히 버무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려는 통합주의자들의 입장에서(이들은 ‘기독교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사역한다), 폴 타우치스 같이 오직 성경을 상담에 적용하려는 이들은 외골수적이고 심리학을 혐오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성경적 상담’을 추구하는 이들도 약물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실험 결과를 그냥 무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심리학의 무신론적 전제와 죄가 아닌 환경을 문제로 삼는 진단, 복음이 아니라 자아실현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의 견해 차이를 절대로 좁힐 수 없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저자는 해롤드 린젤이 쓴 ‘Battle for the Bible’에서 풀러 신학교가 어떻게 성경의 무오성에 관한 신념을 바꾸었고, 그 결과 어떻게 성경의 완전성과 권위를 의심하기에 이르렀는지 자세히 묘사한 대목을 언급한다. 풀러는 이후 빠르게 상담 영역에 세속 심리학을 주입하기 시

작했다.

만일 성경에 오류가 없다면, 성경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데 충분한 자원이 된다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속 심리학이 필요할까?

심리학이 전문 학문으로 발전하기 전까지, 인류는 어떻게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가? 타우치스는 아무리 심리학의 독소조항을 제거한다 해도, 심리학이 추구하는 문제 진단 및 해결 방식과 성경의 방식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둘은 친구가 아니라 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번역본 제목을 <거짓 심리학 vs 참된 제자양육>이라고 지은 것 같다.

그러면 왜 상담은 ‘참된 제자양육’일까? 예수님이 교회에 명령하신 제자양육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이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은 복음서에 나온 여러 명령들 외에도 서신서에 잔뜩 기록되어 있다.

특히 서신서는 각각 교회가 처한 상황에 맞춰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뜻대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격려한 내용이다. 사도가 말씀으로 성도를 상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도는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골 3:16)”라고 말했다. 성도들도 “피차” 그리스도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면”의 뜻이 “상담”과 유사한 것을 생각하면 분명 제자양육이, 목사와 성도 관계 및 성도와 성도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상담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저자 타우치스는 상담이 교회의 사역이며, 공적인 사역인 동시에 개인적으로 성도 간에 왕성하게 이루어질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지역교회가 상담의 장이 되고, 말씀이 상담의 재료이며, 성령께서 상담의 능력이 되신다.



▲비성경적 심리상담과 참된 성경적 상담을 비교한 이미지. ©챗GPT

설교와 상담은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의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유사한 역할을 한다. 상담은 설교보다 더 개인의 삶에 실제로 파고든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맛본 이들은 어떻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것인지 또한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능력으로 삼을 것인지 상담을 통하여 서로에게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한다. 그런 노력을 뒤로한 채, 그리스도의 말씀과 친구가 될 수 없는 심리학을 기웃거리고 부지런히 수용한다면,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방편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타우치스의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 양육으로서의 상담을 자기 역할로 받아들이고, 충성스럽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용수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벧엘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벧엘교회 (Bethel Korean Presbyterian Church)는 미 동부 볼티모어 인근 엘리콧시티에 위치한 46년 역사의 독립교회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성도를 세우며 세상을 섬기는 비전 아래, 1세대부터 3세대가 함께하는 예배·가족·교육·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하실 제7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 복음주의적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장로교 목사
-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으로 목회학 석사(M. Div.) 이상 학위를 소지하신 분
- 3년 이상의 이민목회를 포함한 전임사역/부목사/신학교 교수/선교사로 총 5년 이상의 목회 경력이 있으신 분
-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신 분
- 2중 언어 (한국어/영어) 사용에 불편이 없으신 분

제출일 및 방법

- 문의 및 접수: 청빙위원장 김학선 장로 (psc@bethelchurch.org)
- 마감: 2026년 3월 31일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청빙을 마치는 즉시 폐기됩니다.
- 교회 홈페이지: www.bethelchurch.org

제출서류

- 1차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 i. 이력서 (한/영 각 1부)
 - ii. 자기 소개서 (신앙관, 목회 철학, 목회 계획, 가족소개 포함)
 - iii.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영상 2편
 - iv. 목사안수 증명서
 - v. 목회자 추천서 2통 (추천인이 직접 제출)
- 2차 제출서류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하신 분께 개별 연락 드림)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성다솜, 식물 공동체와 모자이크 세상

벚꽃 필 무렵 떠오르는 그림들, ‘공존과 돌봄의 철학’

창조주 영광 풍성함 느낄 다양성 서로 얹히고 기댄 관계의 존재론 알려진 것들 소중히 여기고 보호 예술 통해, 좀 더 나은 존재 성장

벚꽃이 필 무렵이면 성다솜의 작품을 떠올리게 된다. 이맘때면 겨우내 동토 속에서 움츠렸던 것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생기를 되찾는 ‘식물들의 함성’을 담은 그의 작품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그의 작업은 초록, 파랑, 보라, 분홍, 청록, 하늘색 등 여러 색상들이 술렁이며 봄 잔치를 벌인다.

성다솜 작품에 소환되는 이미지는 각양각색의 식물들이다. 식물들과의 만남은 설레고 기분 좋은 순간이다. 국내외를 여행할 때면 꼭 식물원을 방문하는데, 거기서 온갖 진귀한 식물들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을 스케치하고 스튜디오에 돌아와 작업에 착수한다.

물론 작가가 스케치한 모든 식물 이미지가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단 몇 점의 드로잉을 고른 후 단순화와 재구성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 식물의 이미지는 과감히 생략되고 새로운 이미지로 탄생된다. 몇 점을 제외하고 상당수 작품은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넘나드는 ‘회화적 릴리프’로 구성돼 있다. 전체적 구조가 분리되

어 있으면서 하나의 덩어리이며, 각각의 잎은 개별적이면서도 유기체로 존재한다. 처음에는 패넬로 시작했다 몇 년 전부터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포맥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드로잉, 재단, 사포질, 하도 작업, 채색, 그라데이션의 과정을 밟아 최종적으로 풍부한 암시성을 지닌 유기적 이미지가 탄생하게 된다. 작가는 왜 그토록 많은 모티브 중에서도 식물을 다루게 되었을까? 작가에 의하면 작업실에서 식물들을 기르다, 차츰 식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식물들이 계절마다 변하며 돌보는 만큼 기쁨을 안겨주고, 여기에 작가의 상상력이 보태져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까지 주제의 범위를 넓히게 되었다. 식물 공동체는 단지 식물을 그린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된 생명체로서의 관계를 암시한다. 물론 인간 사회는 식물들과 많이 다르다. 인간 사회를 식물과 견주는 것은 호사란상(胡思亂想)의 발상에 가깝지만, 서로 돕고 협력하기보다는 때로는 갈등하며 대립하면서 위기에 빠트린다. 지구에서 각종 분규와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은 지금도 인류의 ‘고질적인 재앙’이 진행 중임을 알려준다.

반면 식물의 세계는 주어진 질서에 따르면서 상호 조화를 도모한다. 이런 측면은 작가를 매료시키는 게

기가 됐다. 그가 식물원을 방문했을 때 아열대 지역에서 온 것이든 온대, 냉대 지역에서 온 것이든, 태생은 다르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에 눈길이 갔다고 한다. 그리하여 작가는 “다름이 곧 아름다움이고 다양성은 조화의 원천이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우리가 놓치지 쉬운 것을 성다솜은 식물의 은유를 통해 알려준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은 창조질서 속에서 보존되고 통일성 속에서 다양성을 나타낼 수 있게 설계돼 있다. 통일성만 있고 다양성이 없다면 세상은 황량하게 되지만, 다양성만 있고 통일성이 부재하면 분규와 혼란, 무질서를 막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다양성과 통일성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다.

‘다양성’은 전에 좋은 의미로 사용됐지만, DEI를 앞세운 문화막시즘 이후에는 이 말이 지닌 뉘앙스 때문에 편치 않은 용어가 되었다. ‘다양성’이란 명목으로 문화 속에 야금야금 침투하여 죄의 형태를 증식시키니 말이다. 이 때문에 ‘다양성’을 누구보다 환영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소극적이거나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의도에서 이 용어를 사용했는지 분별할 필요가 있다. 성다솜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다양성’은 창조주의 영광의 풍성함을 느껴볼 수 있는 표지가 아닐까.

서로 얹히고 기대 있는 관계의 존재론은 그의 작품을 볼 때 놓칠 수 없는 중핵적 부분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식물들은 밝고 명랑한 표정을 짓는다. 포맥스 위에 채색된 형형색색의 칼라는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분출하고 있는 듯하다. 공존의 덕목을 알고 거기서 만족을 찾기에, 기쁨과 즐거움은 그로 인해 덩으로 주어진 듯하다.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은 보는 사람까지 동일한 감정에 감염시키는 파급력을 갖고 있는 듯하다.

웬들 베리(Wendell Berry)는 ‘삶에 봉사하는 예술’에 대해 언급하면서 존경과 충성스러움, 이웃 간의 정, 충직함, 사랑과 기쁨과 같은 미덕을 존중할 것을, 그러한 예술은 우리의 피조성을 본래대로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구호로 그치지 않으려면 예술가는 추상적 수사에 머무르지 말고 “알려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며, 소중히 함으로써만 알 수 있는 것들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Wendell Berry, Life is a Miracle,



▲성다솜, 식물공동체, 포맥스에 아크릴, 193.9 x 130.3cm, 2024.

박경미 역, 『삶은 기적이다』, 녹색평론사, 2006, 19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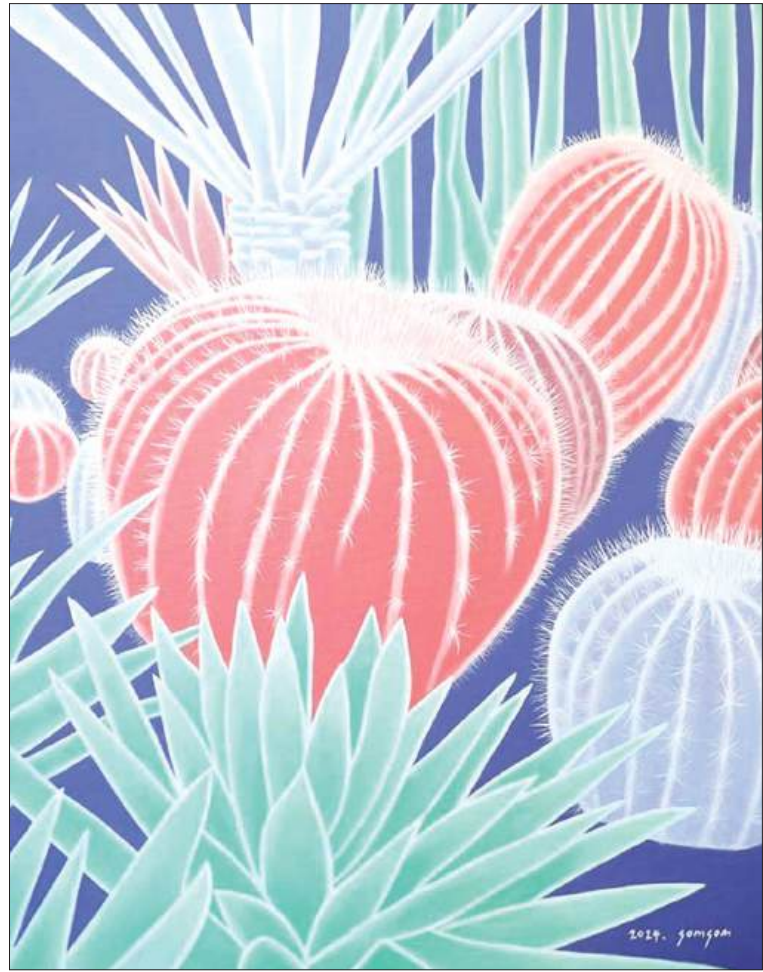
세계 안의 피조물들을 보살피려면 개념적으로만이 아니라 상상력에 찬 마음으로도 그것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웬들 베리는 구체적이며 의미 관련성이 있으며 일상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언어를 제안한다. 성다솜이 구사하는 식물 이미지는 그저 여러 이미지 중 하나가 아니라 그의 개인 경험에서 비롯되었고, 그에게는 꽤나 소중한 것들이다. 그가 이런 식물 이미지를 애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알려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그것에 다가가는 방식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의 작업은 ‘관찰’에 의존하기보다 ‘친근감’을 바탕으로 한다. ‘관찰’은 분석을 필요로 하는데 비해, ‘친근감’은 대상과의 거리를 좁힌다. 주어진 것들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받아들이며 그런 감정이 생긴다.

친근감을 갖지 못하는 언어는 단테나 존 번연을 포기하면서 지성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잘 아는 대상에 애정을 싣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확대시키

고 감성을 넘치게 만든다. 물론 그의 식물 이미지가 꼭 생태 문제에만 국한되진 않을 것이다. 그것의 함의는 우리 예상보다 좀더 멀리 나간다. 인간 사회는 모자이크와 같다. 다른 것끼리 어울려 한편의 작품을 만드는 공교로운 과정이다. 타자를 받아들이면서, 사회는 그만큼 다채로워지고 온전해진다. 그러려면 개체 하나 하나의 특성을 존중하고 그것이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데 빠져서는 안 될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 몇 년 전 차별과 고통으로 얼룩진 한센인들의 삶의 터전을 찾아 한대와 축복의 공간으로 바꾸려는 시도 또한 이런 흐름 가운데 있다. 웬들 베리가 말한 ‘존경’, ‘이웃의 정’, ‘사랑’, ‘기쁨’과 같은 가치가 없었으면, 이런 작업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공존과 돌봄의 철학’을 표방하는 작가에게서 우리는 희망찬 미래의 전망을 가진다. 식물을 주제로 삼은 것 자체가 생태학적으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계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 섬김을 실천할 때 삶이 더욱 부유해진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서성록 명예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성다솜, 식물공동체, 캔버스에 아크릴, 90.9 x 72.7cm, 2024.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HOLLYWOOD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가주 삼성 통운(주)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2026, 자유 위한 투쟁의 해”

자유민주시민회의의 신년하례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 시민들의 모임인 자유민주시민회의(대표 오승배)가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승배 대표의 사화로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김진홍 목사(두레공동체운동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충권 국회의원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홍 목사 “겨울 지나 봄 부르는 사명자 돼야”

인사말을 전한 김진홍 목사는 “지금 자유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동지들은 추운 겨울을 맞고 있다”면서 “그러나 겨울을 지나며 봄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봄을 불러올 수 있는 사명자들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은 질풍노도의 시절을 지나고, 지금보다 더 추운 겨울을 겪으며 오늘에까지 왔다”며 “젊은이들이 변화돼 가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침묵하던 이들이 생각하고, 구경꾼들이 깨어나 모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땀과 눈물, 책임과 희생을 각오하는 동지들의 다짐에서 얻게 된다”며 “새해에도 두려움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대한민국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는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맨 앞줄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이춘근 박사, 김문수 전 장관, 김진홍 목사, 김은구 대표, 이동호 대표, 김정희 대표.

김문수·박충권 “자유는 방치하면 무너진다”

김문수 전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현실 속에 매우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역사적 위기마다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어왔다”며 “뜻을 함께 하는 단체와 인재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때, 우리 외침은 더 큰 울림이 돼 사회를 변화시키는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고 축사했다.

박충권 의원은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유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으며, 민주주의는 방치하면 반드시 후퇴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외쳐야 한다”며 “자유민주시민회의는 자유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위에 서서, 청

년 세대를 교육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사회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춘근 박사 “트럼프 재집권, 세계 질서 재편 가속화”

‘2026년 세계 정세와 한반도 전망’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전한 이춘근 박사(국제정치학)는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현재의 안보 위기까지, 대부분이 국내 정치가 아닌 국제 정치의 결과였다”며 “2026년 역시 국제 질서 재편 속에서 새로운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박사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이에 따른 미국 외교·안보 정책 변화가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최대 전략적 적

으로 규정하고, 러시아·이란·북한 등 공산 및 독재 국가들을 동시에 압박하는 전방위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베네수엘라 정권 붕괴를 시작으로 쿠바, 이란, 유럽 일부 국가들까지 정권 교체 대상에 포함시키며, 미국 패권 회복과 서구 자유주의 질서 수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미국의 외교 노선은 기독교적 가치와 반공 이념을 기반으로 한 강경 노선이라는 점에서 과거 글로벌리스트 중심의 미국 외교와 뚜렷이 구별된다”고 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약화와 북한의 고립이 현실화될 경우, 80년간 유지돼 온 분단 질서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 보유국으로 규정하고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공언해 왔고, 필요할 경우 군사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6년이 ‘자유를 위한 투쟁의 해’가 될 수 있으며, 그 변화가 한반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강 이후에는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 경기북부청년운동 이동호 대표,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김정희 대표, 노동개혁청년운동 서대곤 공동대표, 연급개혁청년행동 민동환 공동대표, 파파미수 김유리 봉사팀장,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최인호 구의원 등 청년단체장들의 덕

담과 결의가 이어졌다. 이후 오승배 대표의 폐회선언과 기념촬영 순으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다.

‘Modern Statesmanship Academy 1기’ 수강생 모집

‘자유민주시민회의’는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다가올 통일한국 시대 주역인 2030 세대들을 조직해 교육·훈련·지원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더 나아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지금의 선거관리위원회 제도를 해체하고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는 새로운 선거관리 제도를 설립하며,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로 하나가 되어 통일한국 시대를 이루어 자유세계 확산을 위해 봉사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단체다.

한편 자유민주시민회의는 1월 19일부터 4월 6일까지 바비엡2교육센터(서울 중구 통일로 114 지상 3층)에서 ‘Modern Statesmanship Academy 1기’를 진행하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시장경제’, ‘이승만 & 박정희 대통령’, ‘미·중 패권시대’, ‘기업이란’, ‘공산주의의 실패’, ‘미국독립 250주년’, ‘왜 통일인가’ 등을 다루며, 김문수 전 장관, 류석춘 교수, 이강호 작가, 이춘근 박사, 김정호 박사, 황성준 위원, 조평세 박사, 김정희 대표, 박충권 국회의원 등이 강사로 나선다. 수강료는 15만 원(강의자료, 간식 제공)이다. 문의: 010-4332-0715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정부, 종교단체에 차별금지법 의견 조화… 교계, 대체로 “반대”

진보당 손술 의원이 최근 차별금지법을 발의해 교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법안에 대한 종교단체 의견 수렴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기독교를 포함해 가톨릭과 불교 등 국내 각 종단 단체들에 최근 ‘차별금지법안 관련 의견 조화’ 공문을 보냈다. 문체부는 이 공문에서 “법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손술 의원 대표발의)’의 심사와 관련하여 각 종교단체 의견을 조화한다”며 회신을 요청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종교단체 의견 조화에 나선 이유에 대해 “법사위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교계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성석 목사, 이하 한교총)을 비롯해 한국

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천환 목사, 이하 한교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박승렬 목사, NCKK) 등 주요 연합기관들이 이 공문을 수신했고, 이미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교총은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기존에 취해온 입장 그대로 적극 반대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한교총은 과거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표현과 학문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행복추구권 같은 헌법의 기본가치를 뒤흔들며 다수 국민에게 역차별을 주어 더욱 파괴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는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교총은 당시 이 성명에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을 차별금지 대상으로 상정하고, 국민의 삶 자체를 차별 보호의 영역으로 규정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 고발자와 범죄자로 만드는 초강등 유발 법안”이라고도 했다. 한기총도 “차별금지라는 명분으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독소조항을 삽입해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려는 시도는 절대 불가하다”며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기총은 이런 견해를 담은 공식 성명을 최근 발표하기도 했다. 한교연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각기 상이할 수밖에 없는 차별(금지)사유를 모두 동등한 비중으로 취급함으로써 결과적

으로 특정 차별(금지)사유를 실제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역차별을 일으킬 것”이라는 의견을 정부에 보냈다. 한교연은 의견서에서 광범위한 차별금지 사유와 폭넓은 차별 유형, 자칭 피해자 위주의 소송 절차, 강력한 민사책임 추궁 부분을 특히 지적했다. 이런 규정이 대다수 국민의 사적 자치 원칙과 계약의 자유에 따른 경제활동의 자유, 그리고 종교기관 및 종립학교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게 이 법안의 가장 큰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NCKK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내부 공론화가 되지 않았다”며 찬반 등 특정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영 기자

학

생

모

집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2026년 새해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모으는지 궁금하시죠? 다섯가지 방법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당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2026년이 밝았습니다. 아직도 짜인을 하시거나 일기를 쓰실 때 2025년이라고 적으시죠? 괜찮습니다. 그만큼 새해는 됐지만 우리에게 익숙치 않기 때문인데, 뭐 이참에 우리 2026년 다시 시작한다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2026년 병오년 미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모으겠다는 건지, 어떻게 부자가 되겠다는 건지, 과연 새해 파이낸셜 결심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미국인 일반인들이 결심한 새해 파이낸셜 결심 Top 5를 살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결심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현재 가장 많은 미국인이 품은 1위 결심, 여러분 혹시 추축이 가능하신가요? 아 부자가 되겠다. 밀리어네어가 되겠다가 아닌 놀

랍게도 빚갚기 paying off debt 이었습니다. 그만큼 평균 미국인들이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반증인데요. 총 가계부채는 2025년 기록 기준 약 \$18.2~18.6조(조는 trillion, 1조 = 1,000 billion) 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모기지,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등 모든 소비자 부채를 합한 금액이지요. 이 중에서도 모기지부채가 70%를 차지하고요. 그래서 미국 평균 가구당 부채는 약 15만불 이상으로 추정되고요. 평균 개인 기준으로는 약 63,000불 정도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늘어났다는 생황비·이자 때문에 채무 부담이 계속된다는 응답이 많은 이는 2024년 말부터 계속 증가했는데요, 2024년 가계 부채가 약 18조 달러였다면 현재 2025년 말 18.58조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에 따라 전반적인 금융 스트레스 수준이 엄청 높아졌고, 거기에 미국인의 86%가 개인의 재정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66%는 높은 보통 수준이상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 가장 많은 미국인들의 새해 재정결심은 저축을 늘리겠다

와 비상금 만들기 입니다. 미국 인구의 50%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준비가 전혀 안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응급자금 emergency fund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Fidelity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약 64% 이상이 “금전적 목표를 세웠다”고 보고됨. 이를 통해 서특히 2026년은 단순 저축보다 체계적인 *저축 플랜(now savings plan)*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 이걸 참 바람직하죠. 그냥 무작정 돈을 모아야겠다가 아니라 체계적인 saving plan이런 부분은 또 저희같은 재정전문가가 도울 수 있으니 좀더 체계적인 계획을 하겠다는 건데 장기적으로 무척이나 고무적인 결심이라고 봅니다.

세번째는 특히 20~30대들에게 인기 있는 답변이었는데요, 여행, 자동차, 집 구매와 같은 큰 지출을 위해 미리 저축을 하고 싶다고 했고,

네번째는 지출을 좀 줄이자가 새해 재정 결심에 들어갔습니다. 약 **30~49%**의 미국인이 “지출을 줄이고 소비를 절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움.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구독 서비스, 외식 횟수, 충동구매 등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불필요한 과부화된 지출을 줄이겠다는 결심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은, 세대별로 이 저축의 목표나 이 유도 조금씩 다른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The Motley Fool의 조사에 따르면 출생연도: 1997년 ~ 2012년(약 13살 ~ 28살인 Gen Z: 큰 구매(차·집)와 저축, 투자 관심 높음. 1981년 ~ 1996년29세에서 44세까지인 illennials: 부채 감축 + 여행·일상 큰 지출 대비 저축 / 1965년 ~ 1980년 2025년 기준 나이: 45세 ~ 60세, 1946년에서 64년까지 태어나 현재 61세부터 79세까지인 베이비부머 (Baby Boomer)들은 Gen X & Baby Boomers: 퇴직 저축·부채 정리 + 주택 개선·은퇴 준비등이 재정 목표이자 저축의 이유였다는 거죠. 다섯번째는 돈을 더 벌어서 인컴을 늘려야겠다 인데요. 추가 수

Sunyoung Moon

Financial Professional | 재정전문가

626.827.9599

SYMOUNMONEYTALK@GMAIL.COM

Wisecalifornia 문선영의 머니토크

임원으로 사이트 잠을 잠겨나 그를 위해서 기술 교육 커리어등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버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곤 느끼는 사람이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물가라던지 등등을 고려 할 때 우리의 인컴으로 더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겠지요.

실제로 주택가격이나 모기지자 수입에 차지하는 적당한 비율이 얼마일까를 생각해 보면 나의 인컴의 28% 미만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택 중간가격을 85만불이라고 놓으면 20% 다운페이하고 모기지 이자 + 주택 개선·은퇴 준비등이 재정 목표이자 저축의 이유였다는 거죠. 다섯번째는 돈을 더 벌어서 인컴을 늘려야겠다 인데요. 추가 수

데 이 6천불 페이먼트를 내기 위한 적절한 인컴 수준은 월 소득 약 \$21,400불이어야 한다는 얘깁죠. 이게 왜 중요하냐, 실제로 주택 모기지 부채로 인한 금융 재정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의 재정결심 이 답 5에 해당되시나요?

작년 Beyond Finance의 설문에 따르면 2025년에 설정한 재무 관련 목표 중 83%가 포기되었고, 19%만이 목표를 한 해 동안 유지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올 해는 그 무엇을 결심하건 끝까지 2026년에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든든한 재정전문가 한명은 옆에 두시길 바랍니다.

저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문선영과 우리 에이전트들 같은 분들 말에 거의 6천불 페이먼트가 나오는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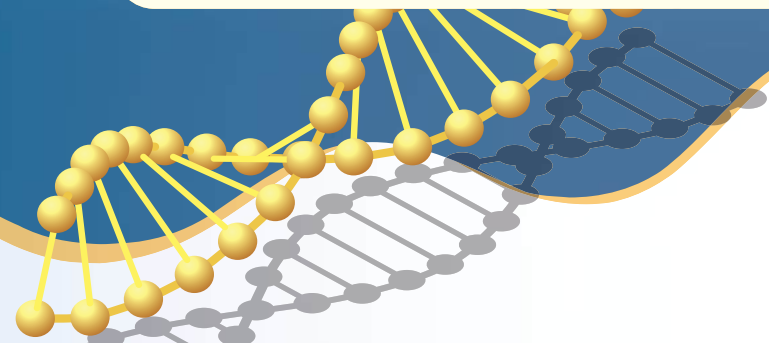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L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노화를 막는 시대를 넘어, 회복의 시대가 왔습니다”

주요 라디오 · 신문이 주목한 텔로유스(TeloYouth) 젊음회복 프로그램

LA 라디오코리아, 라디오서울, 우리방송, CBS 기독교TV, NY 라디오코리아, NY K라디오, 아틀란타 라디오코리아 등 주요 방송사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뉴욕일보, 타운뉴스, 교차로, 밸리뉴스 등 주요 신문사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젊음 회복 기술, 텔로유스를 소개합니다.



건강의 ‘마스터 키’, 줄기세포

텔로유스는

우리 몸의 골수에서 줄기세포 배출을 최대 3,600%까지 유도하는 10년 이상 앞서간 세포신호(Cell Signaling) 기반의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로, 몸 전체의 구조적 균형, 기능적 회복, 그리고 감정적 체계까지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텔로유스의 핵심 특징

10년 이상 앞서간 최첨단 생명공학 세포신호 기술
골수에서 줄기세포 배출 최대 3,600% 유도
온몸의 구조 · 기능 · 감정 체계까지 재생 & 회복



퀀텀 젊음회복 6개월 프로그램
패키지 \$2,478

무료
증정

새해 프로모션
\$2,478 패키지 구매시
텔로유스 파우더 한병(\$300)

12가지 국제인증마크와 제3기관 임상실험들, 그리고 수많은 체험사례들이 텔로유스의 퀀텀 젊음회복 프로그램을 증명합니다!

- Dr.D**Kim님: 갑자기 찾아온 전립선4기암 진단은 60여년간 의사생활을 해온 나에게도 실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음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전립선암수치를 측정하는 PSA가 400에서 209, 1.5, 0.8로 떨어지는 기적을 맞보았습니다. 또한 황반변성이 좋아진 것은 신경과 전문의로서 가히 우리몸에서의 줄기세포가 불가능하다는 신경세포도 되살릴수 있음을 확인해주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 Dr.J**Park님: 22년간 가정주치의로 많은 환자들을 돌보았지만 정작 내 자신의 혈당은 약으로도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높은 혈당으로 인해 다리부종이 심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혈당이 조정되며 붓던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A1C 가 8.1에서 7.3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이**님: 심장수술, 채장암수술에 이어 두번의 뇌졸중이 오며 워커로 겨우 걷던 것이 지금은 혼자 걸을 수 있고, 물조차 입으로 먹을수 없어 G-tube를 낀 채 생활한지 1년이 넘었는데, 젊음회복 프로그램 5개월째인 지금, 조금씩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 S**님: 친구들이 보톡스 맞았냐고 물어봅니다. 70대에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고 팽팽할 수 있을까 거울보는 것이 행복합니다.
- J**님: 지난 40여년 사용해오던 십여가지 약에 의지하지 않아도 하루 생활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 이**님: 부끄러워서 숨기고만 있었던 발톱무좀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 W**님: 20년간 복용하던 우울증약을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정**님: 불면증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날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 D**님: 70대이지만 동창회가면 제일 젊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날마다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 레**님: 90대에도 소일로 발일하시며 마을에서 제일 건강하시다는 저의 노모의 건강은 텔로유스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 F**님: 공황장애 약에 의지하지 않고도 많이 편해지고 자유로와졌습니다.
- R**님: 갱년기 증상들이 다 없어졌어요, 늘 피곤하면 나타났던 구순염도 이제는 더이상 나오지 않네요
- S**님: 평생 고생하던 천식때문에 기침을 달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너무나 멀쩡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 하*님: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뽐뽐 솟습니다.
- **자님: 80대에도 고운 피부와 젊은 에너지로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 J**님: 10년동안 고생하던 혈당조절이 이제 정상으로 잘 됩니다.
- N**님: 딸인 저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던 엄마가 저를 알아보세요, 이걸 기적입니다!

그 외 수많은 체험사례들을 www.TeloYouthKorean.com 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임상실험 Clinical Studies |
|---|
| 인지기능 46.2% 향상/줄기세포배출량 377%. University of Miami |
| 우울증개선 Blefegell Hospital, Kongsberg, Norway |
| 스트레스호르몬 50%까지 감소. University of Trier, Germany |
| 성욕구/만족도 University of Trier, Germany |
| 근육량 증가 University of Colorado |

이런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120세까지 건강하고 젊게 사시고 싶은 분들
- 역노화 (Reverse aging) 기술력으로 10년이상 젊어지고 싶은 분들
- 밤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 기운 없고 늘 피곤함
- 각종 염증으로 늘 고생함/ 스트레스를 못 이겨냄/ 의욕이 없고 우울함
- 장 트러블/ 소화력이 떨어짐/ 눈이 건조하고 침침함
-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짐/ 혈당조절이 힘들/ 통증에 시달림
- 몸의 여러 구조와 기능들이 만성적으로 고장나 고민하고 계신분들



TELOYOUTH

www.TeloHealing.com

[파트너 모집 | 40-50대 환영]

최첨단 생명공학 세포신호기술 기반
젊음회복 프로그램 전문 코치
의미 있는 일과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분

문의 : 레이첼 건강 수석 코치

☎ 714-851-8035